



제6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남보다 먼저 성공의 로드맵을 그려가며 실력으로 앞서가는 고졸인재

감동의 성공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꿈을 향한 당찬 의지와 노력을 엿본다



교육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6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 만든 사람들

---

### 교육부

실장 김영곤  
과장 최보영  
교육연구사 강명철  
사무관 이창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태  
연구원 장경천  
연구원 최정윤

### 심사위원단

홍보 담당관 김지선(교육부)  
교사 홍성건(수원공업고등학교)  
기자 정유진(한국경제매거진)  
팀장 노태룡(KB국민은행)  
팀장 노형만(대한상공회의소)  
차장 황진우(KRX국민행복재단)  
과장 양현준(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신소연(더인터뷰연구소)



제6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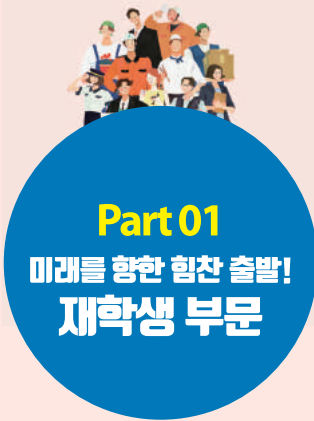


교육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O.N.T.E.N.T.S.



- 09 꿈을 세워라,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금상 / 박세별(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 017 어둠 속에서 찾은 한줌의 햇살  
은상 / 강유림(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 022 화양연화[花樣年華]  
은상 / 김지영(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 029 나라는 한 송이의 꽃이 되기 위해  
은상 / 서영민(거제공업고등학교)
- 036 꿈을 향한 철인 3종 경기  
은상 / 조주현(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043 고등학교 자퇴생, 공무원이 되다!  
동상 / 김민음(충남인터넷고등학교)
- 050 실패는 밑거름되나, 시도조차하지 않은 것은 실패가 된다.  
동상 / 나다연(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056 봄(Seeing)으로써 봄(Spring)을 주는 사람  
동상 / 박세은(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 062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동상 / 오서주(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 069 꿈이 없던 소년 꿈이 생기고, 결국 그 꿈을 이루다.  
동상 / 이의준(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 074 공부가 제일 싫었던 중학생, 세무 공무원이 되다!  
동상 / 허정희(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 081 열정, 그 이름으로 도전하라.  
특별상 / 윤수진(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 087 R=VD, 나는 꿈을 이뤘다.  
특별상 / 이소영(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 094 취업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상 / 이유헌(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101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은 증명되지 않는다.  
특별상 / 임현아(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 107 나의 꿈, 내 손으로 직접 그리자!  
특별상 / 조효상(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 Part 02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졸업생 부문

- 117 내 인생의 첫 마라톤 완주기  
금상 / 양초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24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은상 / 복권일(지역인재 9급 공무원)
- 131 꿈, 滿發(만발)하다.  
동상 / 김민지(충청북도교육청)
- 137 내가 바뀌는 순간, 세상은 나를 응원한다.  
동상 / 육지연(삼성전자)



## Part 03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성인 부문

- 147 '누구의 동생'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금상 / 양현주(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151 반대했던 특성화고 입학,  
두 번의 고졸취업 성공신화를 이루기까지  
은상 / 최순화(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
- 156 기간제교사에서 산업체 우수강사 → 취업지원관  
→ 3학년 담임(취업 업무)까지  
동상 / 황선희(전주공업고등학교)







## Part 01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재학생 부문

꿈을 세워라,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어둠 속에서 찾은 한줌의 햇살

화양연화 [花樣年華]

나라는 한 송이의 꽃이 되기 위해

꿈을 향한 철인 3종 경기

고등학교 자퇴생, 공무원이 되다!

실패는 밑거름되나, 시도조차하지 않은 것은 실패가 된다.

봄(Seeing)으로써 봄(Spring)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꿈이 없던 소년 꿈이 생기고, 결국 그 꿈을 이룬다.

공부가 제일 싫었던 중학생, 세무 공무원이 되다!

열정, 그 이름으로 도전하라.

$R=VD$ , 나는 꿈을 이뤘다.

취업 꽃이 피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은 증명되지 않는다.

나의 꿈, 내 손으로 직접 그리자!



# 꿈을 세워라,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는 네가 그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너는 멋진 꿈이 있잖니? 그곳에선 이를 수 없을 거야.”**

마이스터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다녀온 제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에 은행에 취직해 최종 학력이 ‘고졸’이십니다. 수학교사가 꿈이셨던 어머니께서는 간절히 대학 진학을 바라셨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무하시던 은행이 갑작스레 문을 닫아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졸이라는 최종 학력 때문에 은행처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네 자녀에게 고생을 안겨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식당일을 하시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고졸의 한계를 몸소 경험하신 조언자로서 하나뿐인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중학생 때 저는 인문 과목을 곧잘 하면서도 디자이너 또는 체육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사회 반장과 영어 반장, 성적 미달 학생의 수학 멘토를 맡았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으며, 학교 게시판을 꾸미는 일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 배드민턴부와 티볼부, 축구부, 농구부, 피구부 등 다양한 체육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상위권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엔 학원 대신 태권도장을 다니는 다소 비범한 학생이었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기대가 컸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당연히 여느 학생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이뤄 갈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선취업 후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의 일종으로, 고등학교 3년간 전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영마이스터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분야 마이스터고에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가정 시간에 잠시 다루었던 ‘전기’를 배울 때가 가장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하지만 넓은 범용성을 지녀 현 사회에서 없어서 안 될 양면성을 지닌 에너지라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픈 호기심과 좋아하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는 설렘이 있었고, 전공 분야에서 명장이 되어 미래를 이끄는 엔지니어가 되고픈 꿈이 생겼습니다.

### “물론 네 선택을 존중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고졸이라는 학력은 네게 너무 불리한 선택이 아닐까 싶네, 후회하지 않겠어?”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원한 제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푼 꿈을 가슴에 품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원하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시엔 아직 마이스터고가 생소했고, 저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기에 선생님께서는 제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스터고 진학이 단순한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가치

를 빛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종종 고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어둡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욱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갔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 지금 아니면 언제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이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만든 신조입니다. 겉보기에 맡은 일을 미루지 말자는 의미로 보이지만, 실은 1분 1초를 아껴 행동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꿈을 이뤄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을 떠올리면 항상 설레고 힘이 나는 것 같아 매사에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마이스터고등학생이 된 저는 신조를 상기하며 영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기초 역량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이공계열 필수과목인 수학과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초반에는 중학 수준의 수학과 영어를 복습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학과 영어 관련 교과서를 모두 모아 다시 한 번 풀어 보고, 심화 단계로 기초수학과 실무영어인 토익과 오픽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초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스터로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 분야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전기 분야 자격증 취득’, ‘전기 관련 현장체험학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기기능사를 독학으로 공부하기엔 전기기기 부분의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스터디 친구들과 분량을 나눠 함께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

리 책을 훑어본 뒤 노트에 요점을 정리했고, 스터디 활동 시간엔 서로 공부한 부분을 돌려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검색해 보며 공부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신속 정확한 도면해석능력과 능숙한 기사용능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이용해 학교 시퀀스 제어실에서 여러 공구와 전기기기 사용법을 익혔고, 스스로 도면을 보는 법을 터득하여 전기회로 조립을 연습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6년 기사사 3회 검정에서 전기기사 실기관리원을 맡을 수준에 오르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발전교육원에서 현장 감각을 익히는 연수를 받고 전기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학교생활입니다. 나의 미래는 평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교실에서도, 동아리에서도, 스터디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교내 프로젝트실습 발표회와 전자회로조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남다른 경력을 쌓았습니다.

### **‘준비된 자에겐 설렘이, 그렇지 않은 자에겐 두려움이!’**

마이스터로서의 역량을 차차 갖춰 나갈 때쯤인 고등학교 2학년 중반, 제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의 채용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의 친환경 발전을 통해 한국 전기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대규모의 발전 회사로 꿈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지원분야가 전공과 일치해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빛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한수원의 주된 사업은 ‘원자력 발전’과 ‘국산 원전 기술 확보’, ‘원전 해외 수출 사업’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루어 보아 당장 제게 취약한 것은 ‘원자력’ 분야였습니다. 채용 준비 기간 동안 매주 도서관을 찾아가 원자력을 소재로 한 도서를 대출해 읽었고, 회사 홈페이지와 웹 서핑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정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원자력은 접해 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로 독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회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굳은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와 영어, NCS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는 그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어떻게 해야 독특하고 비범하게 보여 줄지 고민했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들을 준비하였고, 고졸다운 패기를 보여 주고 싶어 씩씩해 보이는 밝은 미소와 당찬 목소리로 발표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생에서의 첫 면접을 준비하며, 18살의 어린 나이에 꿈의 기업 채용 응시 자격을 마련해 준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면접 당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차게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 드린 후 채용에 당당히 합격하며 꿈에 그리던 고졸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남다른 성취욕!

저의 취업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비인문계고 진학을 반대하시던 어머니와 제 선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셨던 중학교 담임 선

생님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처음에 제가 결정한 그 선택을 후회할까봐 걱정 하셨지만, 지금은 인문계 방식의 공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이뤄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고졸취업에 일찍이 성공한 저를 돌이켜 보면, 저는 항상 무엇이든 잘 해내고 싶다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 조금해하거나 안일해하지 않고 꾸준히 현재의 나를 진단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자기제어능력이 저를 성공적인 고졸취업으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니면 언제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라는 신조는 만든 지 3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계획을 실천할 때는 물론이고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문구입니다.

취업이 제 꿈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이후 1년 간 4개의 전문기술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고, 학급 반장과 피구부 주장, 문예창작동아리 회장을 맡아 리더로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상위권의 학업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인 '상상설계대전'에서 고등부부문 창조혁신상(1위)을 수상해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후배들의 성공적인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파 매일 방과 후에 10명 멘티의 멘토로서 취업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며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같은 입장에 있었던 선배의 마음으로 멘티들을 대하자, 멘티들도 점차 취업에 임하는 고등학생으로서의



감을 잡아 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 “꿈을 세워라,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2017년의 저는 제약과 1등, 프로젝트 1차 통과, 전공인증 통과, 인사성 최고,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영농 공동 과제 수상, 각종 글쓰기 및 학업상 수상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었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GMP 시설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2018년 1월 2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두근두근 기대되는 첫 출근, 앞으로 펼쳐질 저만의 파란만장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며 개개인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제 성공 수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꿈은 어느 순간 운명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원하는 것과 가장 근접한 ‘바라는 꿈’을 직접 세워야 합니다. 그 꿈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꿈을 만들어 가세요!

고졸,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수요에 맞춰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명장을 길러 내는 학교입니다. 저의 사례가 고졸취업에서의 무조건적인 정답 사례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저 스스로 이뤄 낸 결과라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이 꿈을 좇아 스스로 달리고, 완주

꿈을 세워라,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찾아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 나서고, 남다른 전문성을 확보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합니다!

## 어둠 속에서 찾은 한줌의 햇살



한창 고등학교 진학 시즌이던 2015년 겨울, 차가운 한파가 저를 매섭게 휘감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즌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 꿈은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가 되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어 현재보다 더 행복한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소중한 뜻깊은 꿈을 가진 16살 강유림은, 어느 날 문득 학교 공부만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엔 너무 어렵고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 간절함, 열정, 끈기, 인내

그러나 저에겐 어린 남동생이 2명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제가 학원에 다님으로 인해 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부모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성적이 유지되거나 오르지 않으면 학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간절했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학원비가 아깝지 않도록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이 끝난 11시

에 집에 도착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알 때까지 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50개의 영단어도 암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성적이 계단을 오르듯이 막 오르지 않는 않지만, 서서히 오르더니 200명 중 86등에서 17등까지 올랐습니다. 그 성적 향상은 저에게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으로 상위권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까지 얻었습니다.

### 간절함, 열정, 끈기, 인내

그러나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 들어섰을 당시, 부모님 사이가 상상 이상으로 매우 좋지 않아서 매일 밤 다투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사춘기였지만, 어린 남동생을 침착하게 돌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께서 매일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나만 받으면 걱정이 없었겠지만 어린 동생들이 받을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우는 동생을 달래 주었고, 준비물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아빠와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힘겹던 생활, 특별한 인연, 소중한 선택

엄마와 따로 살게 된 후 아빠께서 버신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월급을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는데도 그 생활은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그

래서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은 적도 있고, 계란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인문계나 외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후, 저는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꿈을 다시 세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로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마이스터고등학교 홈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선박, 바이오, 전기, 전자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로 특화된 고등학교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관심 있던 의학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의 바이오 제약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심한 끝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100명 중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 새로운 길!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저는 학교 운동장 3바퀴 돌기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 바이오제약이라는 분야가 생명과 화학, 의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미생물배양, 세포배양, 분리정제, 제형, 분석, GMP 과목들이 매우 흥미로웠고, 몰랐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알아 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이론에 대해서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복습하였고, 전공 실습은 매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때부터 3학년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토익 675점이라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 ‘사랑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 탓에 밝고 명랑하게 인사하지 못했던 저였기에 3년, 졸업하는 그날까지 ‘인사성이 밝고 명랑한 강유림이 되자!’라는 저만의 부수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나만의 계획과 의지, 반복만 하면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인사성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인사를 했을 때 선배나 선생님들께서 받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의 인사인 ‘사랑합니다.’를 계속 하다 보니 인사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금 현재 졸업을 앞둔 저 ‘강유림’은 인사성이 밝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

그렇게 시간이 지나 2학년 18살 저에게 좋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취업처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었습니다.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전공 분야 모두 흥미로웠지만 그중 ‘분석’이 가장 적성에 맞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인증기관이 바이오 제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충분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안전한지, 해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접점이 있었습니다. 약 1년간 해 온 모든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수시로 면접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당시 면접뿐만 아니라 영농 공동 과제 및 중간고사와 겹쳐 육체적

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3가지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영농 공동 과제 3위 동상을 받았고, 전교 3등을 유지하며 간절했던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도 합격하였습니다.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2017년의 저는 제약과 1등, 프로젝트 1차 통과, 전공인증 통과, 인사성 최고,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영농 공동 과제 수상, 각종 글쓰기 및 학업 상 수상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었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GMP 시설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2018년 1월 2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두근두근 기대되는 첫 출근, 앞으로 펼쳐질 저만의 파란만장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며 개개인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어렸을 적, 저도 행복한 가정에서 저만의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위에서와 같이 빛나갔습니다. 이처럼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새로운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꿈을 가지든 어떠한 상황이든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 목표했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학생들,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화양연화 [花樣年華]



### 잃을 것도 없던 소녀

특성화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나는 더는 잃을 것도 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나는 새벽 4시가 되면 아버지의 신문 배달을 도와 집집마다 신문을 날랐다. 내 나이 또래들은 아직도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간이었지만 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버지의 곁에서 ‘언젠간 우리 가족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고, 남은 시간에는 홀로 아침밥을 챙겨 먹은 후에 등교하였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잘사는 동네에 공부 분위기가 좋다는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사람도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좋은 성적이 아닌 빈부격차라는 절망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이었을까 한 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너희 집은 나라가 지어 준 집이라며? 안 됐다.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 말이 도움보다는 연민의 눈길 같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필이면 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힘들게 했으며 나 자신까지도 힘들었다.

그렇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알았다. 비록 남들과는 다르게 춤을 즐



기며 잘 추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 춤마저도 ‘내가 이 길이 맞을까? 나라는 애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며 점점 좌절의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입학설명회를 듣고 난 후 마치 오랜 가뭄으로 말라 버린 땅을 해소하는 비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기뻐다. 뭔가에 이끌린 듯 회계라는 과목이 이전 배웠던 과목과는 다르게 생소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진학의 길보단 일찍 성공하여 집안의 버팀목이 되고 싶기에 취업의 길을 택하고 싶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 ‘도전’이라는 싹이 트다.

2015년 3월, 입학한 순간부터 이전 삶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개학 후 일주일 동안은 적응 기간이기에, 친화력이 좋은 나는 친구들을 사귀기에 바빴다. 일주일이 지난 후 상업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회계를 첫 수업으로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무너졌다. 설레는 마음은 도통 찾아볼 수 없이 정신이 나가 있었다. 그동안 나는 수학이 불필요한 과목 중 하나라 생각했으며 가장 못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포기하면 중학교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난생 처음으로 학교 후에 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회계 공부를 했고, 모르는 건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았다.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회계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생각하며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공부했다. 그 결과 중학교 때 반에서 만년 27등 하던 내가 전교에서 상위 13%의 사람이 되

어 있었다. 그날 엄청나게 눈물을 쏟았던 거로 기억한다. ‘나라는 사람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도전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연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그 후 사무자동화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학교 수업 일정이 모두 끝나면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했다. 물론 처음부터 푹푹푹푹 잘할 린 없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 보니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빠르게 취득하며 취업의 문에 한 발짝 다가섰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삼성 캠퍼스톡이라는 강연을 들어볼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번쩍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요! 무조건 갈래요!” 하며 당차게 얘기했고, 강연을 들은 후 나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많은 기업의 주축이 되기도 하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당당하게 직원증을 목에 걸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삼성전자 입사에 관심이 많던 나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드림비전발표대회 때 꿈의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ppt를 작성하여 9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앞에서 당차게 발표했다. 준비하는 동안 쉬웠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학교시험과 수행평가가 동시에 겹쳤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활용했고 그 결과 값진 동상을 받았다. 꿈에 대한 열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 참된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평일에 학업에 힘을 썼으면서도 주말에도 절대 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애썼다. 용돈을 스스로 벌고 싶어 백화점에서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웠다. 사회생활은 절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정신도 키울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작지만 빛나는 17살의 나는 두려울 게 없기에 도전했고 꿈이란 별을 쫓아가기 위해 도전했다.

### ‘산다라’란 꽃봉오리가 멋지다.

2016년, 고등학교 2학년의 나는 ‘산다라’란 단어를 좋아했다. ‘산다라’란 굳세고 꿋꿋하다는 순우리말이다. 2학년에 접어들었을 무렵 1학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우리 학교는 2학년의 행사 비중이 가장 크며 자격증, 과목 수에 따른 수행평가, 학교시험을 계속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 하루가 힘들게 쫓기며 흘러가고 있을 때쯤 3학년 선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머리도 식힐 겸 전통트로트가요아카데미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으려?” 순간 나는 ‘지금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무슨 트로트야.’라고 생각했지만 선배의 권유에 승낙을 해 버렸다. 죽히 5달 정도 준비해야 하는 대회였는데, 그 시간 동안 트로트 레슨도 받으며 훈련을 했다. 학교가 끝나는 대로 동아리가 없는 날이면 왕복 2시간이나 되는 대회장에 버스를 매번 환승해서 찾아가 코치님과 함께 트로트 연습을 했고, 시간의 시간을 쪼개 자격증과 시험공부를 병행했다. 그해 11월 트로트대회를 끝마치고 장려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말하고 난 후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 생활에 있어서 실 틈 없이 숨 가쁘게 산 건 아닐까?’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음을 굳게 먹고 최대의 여유를 되찾은 계기가 됐다고 여기기로 했다. 이러한 경험이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하고 깨끗하게 임하고 있다.

12월 겨울, 학교 아람제 축제가 한창이었다. 이때 나는 총 10개의 회계,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상위 20%에 안착해 있었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이미 스펙이 쟁쟁한 애들이 넘치고 넘치기에 더는 안주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찾아오는 의지박약. 이러한 슬럼프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아람제 축제 MC의 오디션에 합격하였다. MC는 모든 진행의 순서를 알아야 하고 각 팀마다 소개를 맞춰야 하므로 소통이 필요했다. 나는 진행하는 순서별 팀 친구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조언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은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2학년 때까지 꿈의 문만 두드리겠다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도 2%가 부족했다. 그건 바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였다.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공부를 제외한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경험으로 무장한 나는 삼성전자 입사라는 취업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리라 확신한다.

바쁜 18살의 나는 배움을 통해 성장했고, 경험으로 미래의 폭이 넓어져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를 깨달았다.

### 활짝 열어 만개하다.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취업이란 문턱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였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심정으로 절대 뒷걸음치지 않았다. 취업처가 들어오는 순간마다 지원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도 써 내려갔다. 엉망진창이었지만 나의 경

힘과 이제까지 했던 노력을 기업의 입장과 접목해 써 가며 완성했다. 물론,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다. 한 번 쓰고 버려진 자소서만 휴지통에 수북이 쌓여 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학기 초반에 삼성 그룹 중 삼성화재가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목표지만 그래도 삼성그룹 계열에 받을 들이고 싶어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 당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삼성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꾸준히 참여했고 심지어 꿈 장학재단에 어렵게 참가해 발탁되어 장학금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많아 추려 쓰느라 힘들 정도였다. 결과를 보고 잠시 낙담했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나에겐 아까웠기 때문이다. 불합격이라는 쓴맛을 본 나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고 자기소개서도 틈틈이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주신 기회였던 것일까, 올해 6월에 삼성전자 제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공고를 보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뻐했다. 사실 내 성격상 앉아서 하는 사무직보단 활발하게 움직이는 제조직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고졸 예정을 오랜만에 뽑는다는 소식에 서류를, 평소 같으면 20분 동안 쓸 것을, 40분간 심혈을 기울여 썼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 다음 필기가 있었기에 UK테스트를 종이로 따로 출력해 50장 정도 풀었다. 정말 팔에 쥐가 날 정도로 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다. 필기까지 합격한 후 면접을 보러 본사에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나에게는 크나큰 행복이었고 여기까지 해 왔던 노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면접 볼 때의 나는, 아르바이트와 경진대회를 통해 스피킹이 향상되어,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친 모습이었다. 8월 22일 삼성전자 DS 부문 제조직으로 최종 합격이

되었다. 합격 발표 후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빛났어.”라며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노력은 결국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인 것을 확신했다.

나는 사실상 꿈이라는 것이 배구경기 같다고 생각한다. 배구는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상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혹여나 떨어뜨리면 어떠한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꿈을 이룬 이 순간은 화양연화다. 화양연화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일컫는 말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취업’이라는 두 글자를 붙잡기 위해 달려 왔고 그것을 실현했다.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10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마디 외쳐 본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꿈이 있는 이상 우리의 화양연화는 계속된다는 것을!”

## 나라는 한 송이의 꽃이 되기 위해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한 뒤 거제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지금의 제 위치에 서기까지 밑거름이 된 많은 경험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겪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많은 특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취업 수기를 작성하는 기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씨앗의 변화

중학교 3학년 초, 관심거리 하나 없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게 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장점을 내세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거제공업고등학교’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 손 벌리면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과 월세를 마련하고, 학원을 다니며 스펙을 쌓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거제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에 ‘거제공업고등학교 입학’이라는 뚜렷한 첫 목표가 생겼고,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

다. 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무작정 따라다니며 공부를 따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항상 도서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힐 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저의 첫 시험 성적은 전교 8등이었습니다. 공부의 요령을 깨달은 저는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며 마침내 거제공업고등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 새싹이 되기 위해

거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 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용이 시작되기 전에 확실히 준비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에 자기소개서 작성, 채용 추천서를 받기 위한 내신 유지, GSAT 준비 등을 계획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치 담그기, 연탄 나르기 등을 하였고,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청소년문화축제기획단 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공동의 과업을 해결하는 방법도 배웠고 저의 장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봉사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동안 156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1학년 당시 모든 교내 대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총 8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 반장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올바른 리더십을 익혀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1학년 내신 1.6%라는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삼성직무능력 검사인 GSAT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출판사별로 다르게 GSAT 문제집을 구매하였는데, 삼성중공업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풀었던 GSAT 문제집은 8권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삼성중공업 채용을 준비하는 데에 모두 바쳤습니다.

## 아직은 겨울

1.6% 내신 성적, 8개의 수상 내역, 160시간가량의 봉사 시간, 전공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 3급. 삼성중공업 채용을 위해서 1년간의 많은 노력으로 쌓은 저의 스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을 받았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꽤 큰 충격을 받아 속상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맘껏 힘들어하지도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여러 번 한 후에야 저는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채용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 이름을 보고 무작정 고르는 것이 아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기업 공채에 도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높은 공채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더욱더 탄탄한 경험과 많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더 뛰어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공기업은 직무수행에 연관된 NCS 채용을 바탕으로 하기에 NCS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발전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발전소 직무 NCS

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당연히 저의 전공인 기계 전공에 관한 공부도 소홀하지 않고, 국내 발전 현황이나 발전소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을 신문을 통해 접하고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공부하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교내 활동에도 꾸준히 참가하였고, 밤에는 기숙사 학습실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등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토익 학원에 다니며 부족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 ‘학생 작가’에도 도전하여 저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며 능력을 성장시켜 갔습니다. 또 발전산업 인재양성 교육캠프에 참가하여 발전소에 관한 생생한 지식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직접 듣고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며 발전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1년간 저의 노력을 생활기록부로 뽑아 보니 1.6%의 내신, 16개의 수상 내역, 4개의 전공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 3급, 그리고 300시간이 넘는 봉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한국남부발전의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시험에서 전공시험, 영어시험, 한국사시험, NCS 직무역량평가(K-JAT), 직무적합성평가를 거치고 3차 실무진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룹토의 면접, 실무역량 면접 후 임원 면접이라는 채용 과정을 거쳐야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여태껏 노력해 왔던 것이었고 잘 해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응원하며 한국남부발전 채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작성할 자기소개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작성이 어려웠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줄여 가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시험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방학 때 학교에 나가 NCS 수업을 듣던 중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동시에 학교에서 보내 주는 일본 해외캠프 3박 4일의 일정과 면접을 준비하는 일정이 겹쳤었습니다. 저는 일본 해외캠프는 확정이었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면접 과정까지 가는 것은 불확실한 도전이었기에 고민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불확실한 것에 걸지 말고 친구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단체 여행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남부발전 입사였기 때문에 일본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마저 포기한 저로서는 더욱더 간절함이 생겼기에 2차 시험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학교에 와 선생님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던 중 2차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일본을 포기하고 꾸준히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를 끝까지 잡아 주신 선생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하나의 싹이 되다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룹토의 면접, 실무역량 면접.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해 본 지도 오래됐고 처음 접하는 면접의 유형들이라 당황하였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것은 유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새로운 발전원 개발 방안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

제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모르고 어려운 것들을 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더욱 깊게 공부하고,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며 새로운 발전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간 면접장에서 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님께 칭찬을 받으며 마무리한 1차 면접은 기분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진행한 2차 면접에서는 따로 더 준비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마인드컨트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임원면접에 임했습니다. 짧게만 느껴졌던 임원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 집에서 쉬던 중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면접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였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고 저는 그날 울면서 선생님들께 전화했습니다.

### 꽃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7:3의 법칙

발전 공기업에 취업하는 제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바탕은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수기를 읽어보신다면 잠을 줄이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사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7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3을 해야 한다’는 7:3의 법칙이 있듯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생과 노력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고, 그 진정성 있는 간절함만이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저의 중학교 2학년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러한 저를 변화시킨 목표 하나, 거제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 냈고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한 것을 꿈을 이룬 것으로, 내지는 인생에 있어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그 다음 또 그 다음의 목표를 이뤄 가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은 언제나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하나둘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수기를 읽은 모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친구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꽃을 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을 향한 철인 3종 경기



### 엄마에게 특성화를 배우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저의 첫 연결 고리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엄마의 학창 시절, 특히 모교였던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이야기는 엄마의 유난히 빛났던 눈동자와 목소리에 실린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해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선입견보다 친근함이 먼저 드는 학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고민하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찾으려니까 혼란스럽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초조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과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빨리 답을 찾도록 다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깨우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차근차근 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 가게 되었습니다.

사회 시간을 유독 좋아했던 나, 그리고 반 친구들이 사회 단원 중 특히 경제 단원에 관해 물어봤을 때 더욱 반짝이는 눈이 되어 경제에 관해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

지 알게 되었고 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을 위한 기약 없는 시간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많은 분들이 상고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 하시곤 했습니다. “네 성적이 아깝지 않니?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나 또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걷던 친구들과 떨어져 나 혼자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겐 꿈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견에 맞설 자신이 있었고 망설임도 극복하여 당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뒤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이 모든 길을 먼저 걸어 온 대선배인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후배가 되었습니다. “탕” 서울여상의 입학과 동시에 컵속에서 꿈을 향한 레이스의 신호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 꿈 철인 3종 경기 첫 번째 종목, ‘서울여상’

꿈을 향해 시작된 저의 레이스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쉼 없이 실시하는 철인 3종 경기와 비슷하게 3개의 고난도 트레이닝 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 종목, ‘서울여상’은 설렘 가득한 교정에 첫걸음을 내디디며 스스로 새긴 다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떤 기업, 또 어떤 직무에 일하고 싶은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아 적성을 찾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15개가 넘는 교내 대회, 교외 기자단, 홍보단 활동 그리고 2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교 너머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항상 일순위로 두어 내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며 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활동은 기자단과 교내 문예편집반 동아리를 통한 인터뷰 활동이었습니다.

인터뷰는 다양한 인생, 직업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가 어색하다고 인터뷰 활동을 꺼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 만나 대화하며 즐거워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내가 잘하고 흥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인터뷰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기 위해 항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 모든 사람들에게 사소한 얘기라도 먼저 건네고 밝은 미소를 통해 긴장을 풀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남다른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를 가진 인터뷰 활동이 고객 상담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은행원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껴 은행원이라는 꿈을 마음 속에 품고 그리게 되었습니다.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에서는 아기돼지 3형제를 각색한 연극을 전교생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기하여 은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내의 많은 활동에 참여했으나 입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준비한 건데 입상 못 하면 속상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든 열심히 해서 헛수고인 것은 없다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학교생활과 이 소중한 경험들이 삶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이라는 꿈이 제 마음 속에 자리 잡는 순간,

“탕” 제 귓속에 두 번째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 꿈 철인 3종 경기 두 번째 종목, 기초 쌓기

은행원이라는 꿈을 품고 노력했던 시간은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기쁨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원은 고객의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론적인 부분부터 기초를 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과서로는 부족한 금융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텔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격증은 미래 은행원이라는 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어떤 자격증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기고사 일정과 자격증 일정이 겹쳤음에도 오로지 꿈에 대한 열정으로 불평보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정 관리를 해냈습니다.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결성해서, 분야별로 설명할 부분을 담당하고 미리 공부한 뒤 서로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진도를 점검해 주며 지칠수록 서로 힘이 되어 주는 동안 ‘함께의 가치’와 ‘꿈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상담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은행원은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또한 중요하다는 선배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통학 시간에 지하철에서 책 읽기에 도전했습니다. 10분이라도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한다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으리라 믿으며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서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독서왕선발대회를 알게 되었고, 독서왕이라는 목표가 제게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출전하기로 마음먹으며 스스로와 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빌리진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구경하기’. 이런 저와의 약속을 통해 처음엔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을 읽었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경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교과서 밖의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 속의 인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은행원 생활에서도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초적 이론을 튼튼하게 다졌지만, 저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실무 연습이 부족하다는 데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탕” 철인 3종 마지막 종목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들려왔습니다.

### 꿈 철인 3종 경기 세 번째 종목, 실무 도전

이론 공부를 통해 기초 훈련을 튼튼히 한 뒤 본격적으로 실무 훈련에 들

어졌습니다. 고객과 상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고객의 금융 고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력을 기르기 위해 멘토링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 활동의 대상이 취약계층 어린이였기 때문에 설명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배우는 금융실무라는 과목에서 조별로 은행 창구 역할 연기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은행원으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은 아무리 공부해도 교과서만으로는 실제 상품 가입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마음으로 직접 은행의 여러 지점을 방문해 봤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 은행원 분들이 저희의 사정을 듣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분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고 몸에 익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고객 응대가 실제 은행원 같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내 취업포트폴리오발표대회에서 막연하기만 했던 은행원의 꿈에 대해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저의 꿈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지금까지 꿈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저의 노력을 IBK 기업은행에서 펼쳐 보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고객님의 행복과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은행장님의 말씀을 통해 IBK기업은행이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윤 창출이 아닌 고객 창출을 실현하는 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신 듯 마침내 저의 손을 잡고 철인 3종 경기의 마지막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해 끝없는 고민도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본인의 목표를 척척 달성해 내는데, 나만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했고 연속된 실패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보단 스스로의,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는 것. 그것이 제 철인 3종 경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비법이었습니다. 실제 철인 3종 경기에서도 운동신경이나 달리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성과 끈기라고 합니다. 은행원이란 꿈을 향했던 저의 철인 3종 경기와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제 인생의 마라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으시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 달리는 것을 잠깐 멈출 때는 있어도, 가야 할 길은 잃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 고등학교 자퇴생, 공무원이 되었다!



**“엄마, 나 인문계고등학교 못 다니겠어. 대학만 길이 아니잖아.”**

2014년 11월의 가을, 꿈도 없이 수능만 바라보며 생활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1년을 정리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친구가 서로 경쟁적으로 아웅다웅하며, 꿈을 위한 공부보다는 맹목적으로 성적과 점수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언젠가는 꿈을 찾게 될 것이라며, 공부를 잘해야지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부여받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9시까지의 야간 자율학습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11시 30분까지 기숙사 자율학습을 마치고서도, 기숙사 학습실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월까지 공부에만 전념하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 몇몇이 전교 1등인 친구의 필기노트를 숨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믿어 왔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도 비전도 없이 숫자에 불과한 등급 경쟁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점수에 울고 웃는 친구들을 보며, 막막한 목표가 아닌 꿈을 찾아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오랜 고민 끝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신입생

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직업교육은 물론, 창의적인 활동과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풍부했습니다. 연 2회 이상의 진로박람회와 리더십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자신감을 찾아 주었고, 연극과 예절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곧은 인성을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이 수업들을 통해 자퇴하면서 조금은 움츠러들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로 한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넘어서 해 볼 수 있는 활동은 다 해 보자는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했습니다. 학생회 전교 부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와 행사를 해 보고, 회계동아리의 부장이 되어 부원들과 함께 상업경진대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은 바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준 ‘또래 상담자 활동’입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친구에게 주변의 오해가 풀리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후배들까지 잘 챙겨 주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해 준 진심 어린 손 편지와 따뜻한 감사의 말이 준 감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삶의 비전이 세워지자, 자연스럽게 꿈을 찾기 위한 활동이 더 열정적이고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들과 함께 교육 봉사를 다니면서입니다. 1학년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조직한 ‘사랑누리봉사단’을 통해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아동센터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아이들은 뛰어나와 저희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한 포용으로 반겨 주는

아이들을 보면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언니 오빠들이 와도 항상 주변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았지만 아이는 “왜?”라는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약간의 뜬금 없이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결혼하고선 싸우는 거야?”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이는 수동적으로 변했고 “왜?”라는 질문만 반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혼자 숨어서 흘렸을 눈물에 마음이 아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알아 가야 할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를 보는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에 지쳐서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에 이유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기도 전에 아픔을 느끼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선생님과 같은 직업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아동 복지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에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졌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작한 것은 ‘함께하는 공부’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정보를 혼자 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다양한 리더십캠프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은 함께 공유할 때, 더욱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교내 공무원 스터디인 ‘충인리더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들과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도 함께 공부해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대비해, 다양한 취업 관련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를 준비하던 친구들도 취업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함께 한다면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 취업 자료 조사 동아리인 ‘꿈을 JOB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기소개서 항목을 조사해 직접 작성하여 서로 읽어 보고, 면접을 대비해 1분 스피치와 경험 면접 시뮬레이션 등을 한 뒤에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공무원 필기시험이 다가와서는 충인리더스 친구들과 함께 서로 문제도 내 주고, 강의하듯이 설명도 해 보며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다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친구와 다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의 흐름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장 열심히 공유했던 친구와 함께 공무원 1차인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면접을 준비하며 저녁마다 학교에 남아 서로 모의면접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꿈을 JOB자!’ 동아리를 맡으며 조사하고 공유한 자료를 통해, 1분 스피치와 경험 정리 등 면접의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후에 전년도에 합격하신 선배님께 연락하여 면접 준비 자료들을 받고, 직접 서점에서 면접 관련 서적을 구매해 같이 공부해 나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신 진로 선생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저녁에 남으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취업부 선생님들께서도 카메라 테스트를 함께 하며, 여러 번 모의면접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학교에서 저희들을 위해 전문 면접 강사 분을 모셔 오셔서 면접의 방향성과 스킬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강사 분께서는 면접한다는 생각으로 말을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친밀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듯 저의 진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면접날, 긴장을 하여 목소리도 많이 떨렸고 답변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꿈과 비전을 진심으로 표현하며 저만의 값진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면접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을 간절히 꿈꿔 온 만큼 결과 발표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3일이 되어, 친구와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합격자 명단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얼싸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둘 다 합격이야!” 그 순간 3년 동안 함께해 온 노력과 격려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기업체에 준비하는 것을 보니,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잘 안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려고 은행 입사 원서도 작성해 보고 공기업 필기시험도 보며 잠시 공무원을 밀어 두고 다른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 속에서 다시 공무원이란 꿈을 되새기며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온 친구의 격려와 동행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며 함께 성장한 친구와 서로 합격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취업부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벌써 결과를 확인하시고는 면접을 보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던 저에게 정말 잘 됐다고 하시며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합격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며 울먹이는 저를 보시고는 면접을 볼 때, 저의 열정과 포부를 향한 진심이 통했기 때문

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으로 우리 학교에서 키워 온 저의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 왔던 칭찬 중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가족과 지인들은 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드리자, 부모님께서서는 감사한 일이라시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고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자 할머니께서 치킨을 시켜 주시며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파티를 했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저를 안타깝게 보시던 할아버지께서도 그 날만큼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뿌듯해하시던 그때의 모습은 아직도 저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으신 다른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저보다 더 기뻐해 주면서 안아 주었습니다. 취업을 나가 있는 동아리 친구들에게서도 축하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역인재 9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노력하며 서로를 위해 울고 웃어 주는 고마운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면서는 느껴 본 적 없는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마운 분들께 보답하며, 학교에서 우리들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저의 모교인 충남인터넷고등학교에 오도록 예비 신입생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홍보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학교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중학생 입시설명회 때,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우리 공무원 대비반인 충인리더스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 가면서 우리 학교가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에게 해 주는 지원을 알리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했습니다.

입시설명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강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많이 났지만, 학생들에게 공무원 대비 교육과정과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이 요구하신 사항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었던 리더십과 자신감을 강조하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학교생활과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이야기하는 경험담은 중학교 친구들의 호기심을 끌어 공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인근의 중학교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여하여 우리 학교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도록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주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충남인터넷고등학교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장’이라고 말입니다.

# 실패는 밑거름되나,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실패가 된다.



## 꿈이 많았던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꿈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기에 진로 결정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한 꿈과 목표 또한 정할 수 없어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알게 되었고, 평소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살려 금융권에 취업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만류가 있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순응을 잘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부모님과 선생님을 설득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뚜렷한 의지를 보여 드렸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님과 연락을 통해 진로상담을 진행했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서적을 사서 매일 저녁 10장씩 정독하는 습관도 길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부모님은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선생님께는 27%라는 애매한 성적을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기보다 저의 이점을 살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연아 네가 특별한 제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게 금융 서적 5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 경제캠프에도 참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구보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나만의 스토리를 그려라

“너희만의 스토리를 그려라.” 우리 학교 취업부장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금융권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저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다자격증인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융·회계·사무·컴퓨터 분야로 나누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은 특히 새롭게 접한 단어가 많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할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많다는 점을 저의 첫 번째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어려웠던 단어는 실생활에서 친구들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상황극을 통해 쉽게 접하려 했습니다. 덕분에 은행텔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제게 가장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회계 공부를 시작했기에, 1학년 때에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자는 세부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 2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 2급, 전산회계 1급을 차례로 취득했고, 2015년 10월 말 3주 만에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 ITQ OA Master, 무역영어 3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총 12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학년 다자격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다른 친구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한 봉사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리서치·정서지원·도시락배달·광주천 EM 봉사 등 직접 발로 뛰어 느낄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저만의 메리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서치 봉사 활동을 하며 직접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기획했기에 마케팅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제 꿈과 한 걸음 더욱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자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임원을 해 왔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학급의 임원이 되어 여러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끌며 리더의 자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임한 결과로 과학 선생님께서 숲사랑 소년단의 부대표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대표와 팀원들을 도우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을 때 쉽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저를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무대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회사 일일 사원과 댄스동아리 비너스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일사원을 통해 4일간 출근하며 배운 팩스 송수신, 전화 응대, 운송장 작성 등 기본적인 회사 업무는 상황 면접 때에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댄스동아리 비너스로 활동하며 구성원들과 함께 화합하는 법과 당당히 무대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 경험 모두 새로웠던 일이었기에 서툴기도 했지만 제 안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기본이 되는 내신 관리입니다. 1학년 때에는 자격증 취득이 목표였기에 전문 교과만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교과의 석차 등급이 매우 낮게 나와 내신 등급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진급한 후에는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 교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문 교과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게 되면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NCS 전공필기,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신 등급을 높이게 되면 서류 패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기업에 지원하면 지원하는 만큼 서류, 필기, 면접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져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 실패를 밑거름으로, 성공이 자라났다.

사실, 처음부터 삼성화재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저는 행원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우리은행이라는 기회를 꼭 잡고 싶었지만,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도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말해 준 것처럼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보자마자 1시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삼성화재 GSAT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상처도 깊었지만 누가 봐도 독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지만, “실패는 밑거름이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 거의 모든 시간을 삼성화재 GSAT에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면접 경험이 있었던 덕분에 좀 더 노련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중에도 삼성화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께 연락해 면접 TIP을 배우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익혔습니다. 내가 근무할 회사라고 생각한 후 기업에 대해 조사하니 더욱 애착이 가고 면접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내내 두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면접의 기회를 이제는 불합격이 아닌 합격으로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접은 “솔직한 나를 보여 주자.”를 주제로 삼아 저를 면접관님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응시를 하다 보면 면접관님이 다른 지원자보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솔직한 제 모습에 호탕하게 웃어 주시며 솔직해서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노련하게 준비한 덕분에 부드럽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주 뒤 수업 시간, 오후 3시에 결과가 나온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결과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 불합격한 경험이 있기에 혼자 조용히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기에 반 친구들과 앞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 있던 ‘합격’이라는 문자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친구가 제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눈물을 흘렸고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내가 도울 차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학교에 가 면접 준비를 할 때 도와주신 선생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에게 멋진 제자, 멋진 후배, 멋진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 주는 선배, 친구의 면접과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친구,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찾아뵙는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 불합격은 최종 합격의 원동력

불합격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화재를 준비하는 동안 불합격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은 경험이었고, 오히려 제게 최종 합격의 결과를 안겨 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3학년이 된 후,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곤 합니다. “나는 서류부터 탈락인데…….”, “내가 면접을 보면 합격하긴 할까?”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저의 친구들이었지만 연이은 불합격 소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언젠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친구들 아니, 더 나아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합격을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될 사람입니다.

# 봄(Seeing)으로써 봄(Spring)을 주는 사람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사무관리실무 수업 시간이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메일이 도착했다. “삼성화재 채용 홈페이지에서 면접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5시 이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접 본 다음부터 제대로 잠도 못 이뤘고 스트레스를 받아 수시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드디어 그간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친구들은 내 자리로 모여 다 함께 채용 홈페이지의 결과 확인 버튼을 눌렀다. ‘박세은 님께서는 종합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첫걸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해 맞벌이를 하셨고, 나에게는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둘이서 집까지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면 배고파하는 동생을 위해 먹을 것을 챙겨 주었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동생과 놀아 주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서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함께 지낸 시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밑거름의 시작이었다.

## 특성화고 입학, 나만의 선택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를 전혀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았으며, 공부에 대한 기본이 없었다.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고, 내가 사는 동네는 학구열이 높아 내 성적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구체적인 꿈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은 정말 시간 낭비의 연속이었다. 어느 때와 같이 무의미하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중3이 되어 진로 상담을 하였다. 전교생 400명 중 350등인 성적을 보며 담임 선생님께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진학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뒤늦게 성적에 대한 현실을 깨닫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홍보를 나왔는데, 우리 중학교 출신이며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기업에 취업하신 선배를 만났다. 그 선배는 중학교 성적이 80%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0%까지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너도 우리 학교에 오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것이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였다.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을 해 주시기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상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의 생각은 안일했다. 평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으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독단적인 행동에 화가 나셨고 한 달간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지.’라는 나의 결심은 꺾지

못했고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 내 목표 취업! 취업준비생의 기초 다지기

‘좋은 기업에 취업해야지.’라는 목표는 세웠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 막막하였다. 중학교 성적 85%였던 나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의 기초적인 상식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선생님들한테 전해졌는지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아무리 기초적인 문제라도 선생님은 친절하게 알려 주셨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차근 차근 알아 가기 시작하였다. 처음 접해 보는 회계와 상업경제 내용도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보았고, 그 덕분에 첫 시험에 중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성적을 받았다. 첫 시험 성적이 잘 나왔던 것이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탄력제가 되어 각종 회계 자격증과 ITQ 등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냥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자가 아닌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에 취업하신 선배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선배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였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회사에 취업하신 선배들이 참석하셨다. 평소 금융보험업에 관심이 있어 보험 회사에 취업하신 선배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다. 다양한 보험 회사 중에서도 업계 1위이며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많은 투자를 해 주는 삼성화재에 관심이 생겼다. 그 후 나의 취업 목표를 삼성화재로 잡고 회사에 대해 알아 가기 시작하였다.

삼성화재에 취업하신 선배는 나에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주셨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반장을 하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다. 평소 책임감 있고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 반장을 맡으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2학년 때 학급 친구들의 추천으로 반장을 맡게 되었다. 반장 역할을 소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친구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급을 이끌기 어려웠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의견 하나까지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학급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였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며 차근차근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장의 역할을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나는 친구들이 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모범학급 선발 등 다양한 학급 행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학급 친구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반장을 하며 리더십을 키웠고 소통능력 또한 길렀다. 반장 활동 이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다. 삼성화재에 관심을 가진 후 금융실무 동아리에 가입하였다. 학교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금융상식보다 더 많은 금융지식을 쌓기 위해 가입했다. 내가 삼성화재와 같은 금융권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게 되어 대구시 교육청 주관의 대구상업경진대회 금융실무 부문의 학교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1월부터 5개월간 주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였다. 같이 출전하는 친구들과 금융 퀴즈를 내며 공부하였고 직접 금융팸플릿을 만들어 상품을 개발해 보기도 하였다.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보험에

대해 더 알아 갈 기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였다. 5개월간 준비했지만 안타깝게 상은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삼성화재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공부라 생각하여 준비했던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1년간 금융실무 동아리 활동을 하며 금융지식을 쌓았고 어느덧 3학년이 되었다. 삼성화재 채용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겨울방학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였다. 방학 내내 학교에 나와 취업 심화반 수업을 들으며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였고, 삼성화재에 더 어울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애가 타도록 기다렸던 삼성화재 채용 공고가 나왔다. 이 날만을 기다리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 최종 지원을 하기 전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10번도 넘게 꼼꼼하게 확인한 뒤 지원 버튼을 눌렀다. 그 덕분에 서류 통과를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인 GSAT 공부는 책을 3권이나 풀면서 수많은 복습을 하였다. 삼성화재도 이런 나의 노력을 알아보았는지 필기전형도 통과할 수 있었다. 또 면접을 준비할 때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오자는 생각을 하며 친구들과 서로 질문을 하며 연습하였다.

면접장에 도착한 뒤, 그동안 기다렸던 순간이고 떨렸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삼성화재의 면접장까지 왔다니!'라는 생각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인·적성 검사를 하고 약 30분의 대기 끝에 면접실로 들어갔다. 면접관님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고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주셔서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정말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려 많이 노력하였고 후회 없이 면접장 밖으로 나왔다. 면접 장소를 나올 때까지만 해도 후회 없는 면접이라고 생각했

지만, 대구로 내려오는 길에는 머릿속에 온통 걱정뿐이었다. ‘그 때 그렇게 대답하지 말 걸 그랬나?’, ‘아, 이렇게 대답할 걸’ 등등. 면접 후 삼성화재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매일 밤을 설쳤다. 그러한 생각은 지나친 걱정이었다. 나는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가끔은 아직도 내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의 입사 예정일은 2018년 1월쯤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 보지 않아 그런 것 같다. 6월에 합격한 후 우리 학교 다른 친구들의 면접을 도와주고 있다. 실제로 도와줬던 친구 중 본인의 목표 기업에 입사하게 된 친구들도 있어 도와주는 것이 귀찮지 않고 매우 보람차다. 아마 내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삼성화재에 입사 후 도움이 되는 공부들도 할 것이다.

나의 좌우명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삼성화재에 속한 사회인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회사 내 인간관계 또한 잘 맺고 싶다. 또, 고객이 먼저 찾는 친절한 사원이 되고 싶다. 학급 반장을 하며 키웠던 소통능력과 금융동아리를 하며 키웠던 금융지식으로 고객의 눈높이를 봄(Seeing)으로써 보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어 주어 고객에게 봄(Spring)을 선사해 주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저는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세무직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진로 선택의 시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공무원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하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표가 없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두려웠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혼란스러운 제게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이모께서 진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이모가 다니는 세무서에 올해 19살인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특성화고에 진학했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남들보다 쉽고 빨리 합격할 수 있겠대. 이모는 30살에야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었는데 그 모습이 기특하고 참 부럽더라.”



그때 처음 이모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저는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길을 잃고 헤매며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 번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오서주'라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문계고등학교 대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인 지금까지 생활기록부 진로 희망사항에 주저 없이 적었던 저의 꿈은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만으로도 목적지에 가기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명확한 꿈이 생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1학년 때부터 세무의 기초가 되는 회계 전공과목을 배웠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세무에 대해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면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세무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자격증시험을 공부하는 데 수월했고, 부족한 부분은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ERP 회계정보관리사 2급 등의 자격증 외에도 컴퓨터활용능력 2급, ITQ, E-Test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내 대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자원하여 교내 학교홍보 스피치대회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비즈니스 영어 경진대회, 금융실무 경진대회, 경제 금융 골든벨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상을 못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쏟아 부은 값진 노력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 취업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취업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취업동아리에서 예쁜 교정 가꾸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삼성 SDS 드림 멘토링,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금융권 진로 탐색 및 상식 특강,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고졸 채용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이 되어서부터 학교에서 마련해 준 공무원 준비반에서

필기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주말과 평일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에서 따로 마련해 주신 공무원반 교실에서 자습을 했고,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며 수험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학교 내신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았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나만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타이머로 점검하고,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나갔습니다. 시험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불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손에서 단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릴까 봐 부담감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작년에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께 상담도 받으며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하였습니다. 한번은 함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의 생일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평소에 먹지 못했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축하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외롭기도 하고, 달콤한 유혹에 많이 흔들렸을 수험생활을 친구들과 함께 헤쳐 나갔습니다. 8월 26일 단 하루, 한 시간을 위해 275일 동안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심기일전한 마음으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저의 신념 하나만을 믿

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으로 가는 동안 단 60분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오늘 하루' 내 손 끝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심환의 힘을 살짝 빌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교실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딸 서주야, 엄마가 우리 서주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

아직까지도 저를 안아 주시면서 떨리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걸으려는 티를 안 내지만 나만큼 긴장하며 한 시간 동안 조마조마해 하실 엄마 생각에 순간 월각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꼭 잡고 고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도착한 고사장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주눅이 들었지만, 반드시 웃으며 이 교실을 빠져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공무원을 해!’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마인드컨트롤을 하고서 시험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10시 정각, 시험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어 왔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다시는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선뜻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문제에 온 신경을 다했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풀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나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고,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부여잡고 두 손으로 마킹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필기시험 이후 3주라는 시간이 지났고, 마냥 절망적이었던 저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필기 합격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원했

던 합격 소식이었기에 듣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며 축하해 주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기쁜 눈물을 흘리며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함께 축하하고 즐겼습니다.

###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10월 21일,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앞으로의 멋진 순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 왔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저였지만, 학교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아 모의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저의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마침내 11월 3일, 3년 동안 두드려 왔던 문이 열렸습니다.

최종 합격 발표 당일 날, 그때 느낀 감정들은 어떠한 단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모두에게 당당해지고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채찍질하며 버티고,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 많던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지만, 나의 선택으

로 ‘오서주’라는 사람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현재 목적지에 도착하여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펼쳐질 많은 순간들이 기대되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제가 3년 전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남들과 같은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세무직 공무원 오서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받을 연수를 기다리며 저는 요즘 여러 중학교에 가서 제가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특성화고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꼭 대학을 진학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온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제도뿐만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도전하면, 남들보다 일찍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찾고,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항상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중학교 후배들을 만나면 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의 미래는 내가 건설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들도 지금부터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삶의 목표를 입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에 더 가까워지고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꿈이 없던 소년 꿈이 생기고, 결국 그 꿈을 이룬다.



### 꿈이 없던 소년 꿈이 생기다.

저는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듯이 저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자 친구들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고르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에 견학을 간다고 해서 저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간 곳에서 제과제빵을 체험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고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빵집에서 보기만 했던 빵을 실제로 만드니 더욱 흥미도 있었습니다. 체험으로 빵을 만들면서 ‘이 일을 하면 재미있겠다. 이 일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제과 제빵사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해라.”, “너의 꿈을 이루어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벅찬 마음을 안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고등학교 진학에 관해 여쭙어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현재 내 성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특별전형에 원서를 넣었는데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무표정하

였으나 마음속이 찢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전형의 기회가 한번 더 남아 있어서 일반전형으로 입학원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학교 때와 다르게 열심히 고등학교에 다닐 것을 다짐했습니다.

## 꿈을 향해 첫걸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아는 선배의 권유로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FFK(Future Farmers of Korea) 전진대회의 제빵 과정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빵을 만들어야 했고, 똑같이 보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목표가 생기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FFK 전진대회를 권유해 주셨던 선배와 대화를 했습니다. 선배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장래를 위해 자기가 가진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선배와 대화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연습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FFK 전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충북 FFK 전진대회에 처음 나가서 동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상을 하며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과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3학년 때의 FFK 전진대회에서는 꼭 금상을 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FFK 전진대회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더 나을 것 같다며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 역시 좋은 도전의 기회



가 될 것 같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의 부족으로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FFK 전진대회에 몰두했습니다. 적은 시간을 쪼개어 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될까 싶은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꿈을 이루다

대회가 끝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곳을 찾다가 대전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심당이란 빵집을 조사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에서 꽤 알려진 유명한 빵집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던 중, ‘성심당은 고객과 직원 그리고 경영주가 삼위일체 되어 움직이는 커다란 바퀴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뜻은 고객에 대한 사랑, 동료에 대한 사랑, 회사에 대한 사랑이 하나라도 빠지면 성심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 같았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가슴 깊게 와 닿았습니다. 단순히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 안에 철학을 담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심당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성심당에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단순히 빵을 만드는 기능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정에 방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마를 해 드리고 제가 손수 만든 빵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덤으로 예의, 배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의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예의·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심당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고 다음 날 내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떨어졌구나.’ 라고 낙심하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안아 주면서 “우리 아들 수고했다, 진짜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꿈에도 그리던 성심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배움의 길

성심당에 입사 후 첫날은 매우 떨렸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일하는 분들은 저한테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존칭까지 써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종이에 적어 기억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도구, 처음 보는 빵, 처음 보는 반죽, 모든 것이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빵을 만들다가 선배님이 자기랑 같이 내려가서 철판을 닦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철판이라고 해서 그냥 학교에서처럼 ‘몇 개만 닦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산처럼 쌓인 철판을 보고 한번 당황했고, 철판 닦는 이상한 기계를 보고 두 번 당황했습니다. 선배님이 철판 닦는 기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매우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알려 주신 대로 기계를 켜고 철판을 넣었습

니다. 뜨거운 열기랑 싸우면서 철판을 넣고 있던 도중 선배님께서 혼자서 할 수 있겠냐고 했고 신입 패기를 보여 주고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던 중 선배님께서 내려오시더니 여기 있는 철판을 다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만큼만 닦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첫날은 세탁, 포장, 만들기. 이렇게 3가지 일만 한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와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허리하고 종아리도 터질 듯 아팠습니다. 간단하게 풀어 주고 바로 잠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고 몸도 익숙해졌는지 발바닥, 종아리,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빵을 사 가시거나 드시는 고객님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만약 저처럼 꿈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에 게 맞는 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데 힘이 드시는 분은 잠깐 쉬어 가셔도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꿈을 포기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또 다시 포기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만 쓰는 것이라 들었고, 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부가 제일 싫었던 중학생 세무 공무원이 되다!



## “철없던 중학교 3학년, 모험을 하다”

중학교 입학 후 과목별로 과외 및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동네 수학, 영어 학원만을 다녔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남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며 공부보다 노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친구들은 외고, 자사고 준비에 열중하였습니다. 30%대의 애매한 성적인 저는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중학교 게시판에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진로캠프’라는 포스터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특성화고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애매한 성적으로 남들과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느니 차라리 모험을 하자는 심정으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가는 과정”

중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탓에 3학년 때 성적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평균 내신을 24%로 마무리하였지만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그리 높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른 모습이 되고 싶어 입학 전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입학 후엔 여러 동아리에 가입하고 선배들을 쫓아다니며 정보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첫 시험에서 반 1등을 하며 빛을 발하였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니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었고 다양한 분야에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자격증 취득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계와 컴퓨터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정을 쏟다 보니 자격증 개수가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결국,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취득하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였고, 더 노력하여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세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는 1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대회 참가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1학년부터 대회에 차근차근 나가 입상을 하였습니다. 교내 대회에서 몇 번 수상을 하게 되니 선생님들도 저의 존재를 아시곤 여러 대회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1학년 때보다 더 많은 입상을 하였고, 학교 대표의 자격으로 전국상업경진대회 선수반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대회 준비는 교내 대회와는 다르게 내용도 어렵고 준비 기간도 길어 내신 공부를 하는 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학교 대표라는 책임감과 이 경험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대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상업경진대회 창업아이템 부문 서울지역대회 금상이라는 명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내 대회와 외부 대회에 열정을 가지며 참가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총 28번의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

처음 특성화고에 입학했을 때 저의 꿈은 한국은행에 입행하는 것이었습니

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전교 1등만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꿈을 접었습니다. 그 대신 3~4%라는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직 공무원이 된 선배가 학교에 강연을 오셨습니다. 공무원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지만, 강연을 듣다 보니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세무 공부를 하면서 세무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세무라는 재능을 살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세무 공무원을 꿈꾸었습니다.

### “공무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 전형에는 학교당 최대 5명 그리고 과당 최대 2명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저 포함 3명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추천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과 공기업 준비를 둘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학년 겨울 방학, 저는 공기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학교에 나가 NCS를 준비하고, 학원에 다니며 토익 고득점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3월이 되자 대형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하나둘씩 면접을 보러 다니고, 취업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붙을지도 모르는 교내 선발시험을 위해 공부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탁결제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괜히 걱정하지 말고 지금 페이스대로 공부한다면 당연히 교내 선발이 될 것

이라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변인들의 격려로 인해 저는 다시 안정을 찾고 공부를 차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 공무원 추천 선발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보다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되었고, 아슬아슬하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교내 선발부터 고비를 맞보고 나니 진짜 공무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학년 3월, 소위 말하는‘공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시련이 뒤따르듯 저 또한 시련이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친구들의 잇따른 취업으로 인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기 초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반에 남아 있는 친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취업한 친구들과 카톡을 할 때마다 부러움이 커져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련을 저만의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습실 대신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독서실에는 공시생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직렬의 공시생 분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같이 달리는 마음으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공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방대한 시험 범위였습니다. 저는 취업 희망자였기 때문에 진학 희망 친구들에 비해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부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 3과목을 아주 깊게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국어는 고전문법부터 현대문법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영어는 문법부터 독해, 이디엄과 생활영어까지, 한국사는 구석기부터 현대사까지 아주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4시 반에 마치고 5시 반까지 독서실에 도착하였습니

다. 혼자 저녁을 먹고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몇 개월만 고생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설레며 공부하였습니다. 또 저는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하고 싶었기 때문에 필통에 '국세청 세정홍보과'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마다 필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학교 내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하여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신 2주 전에는 공무원 공부를 잠시 내려 두고 내신에 집중하였습니다. 오히려 2주 동안 바짝 집중해서 준비하다 보니 과 1등을 하는 등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련은 학기 말에 열리는 체육대회였습니다. 학교는 체육대회 준비로 인해 후끈한 분위기였고 저 또한 기분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시험 2달 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무원반을 위해 수업을 빠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습실을 제공하였고, 반 친구들 또한 저를 배려하여 체육대회 준비에서 빼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안한 환경에서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시험이 1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 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가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하루 평균 순수 10~12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연락으로 인해 시간이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 외엔 카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기출문



제를 풀며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외워야 하는 영단어와 한국사는 자기 전 1시간씩 침대에 누워 꼭 복습하고 잤습니다. 바쁘게 한 달을 보내다 보니 8월 26일 필기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공부했던 것보다 쉽게 출제되어 문제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균 9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성적으로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2차는 간단한 서류 제출로 무난히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은 3차 면접이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면접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련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졸업고사와 추석 연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졸업고사를 공부하라는 입장과 졸업고사를 포기하고 면접 준비를 더 하라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취업 후진학' 전형으로 대학교 세무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와 졸업고사를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자지 않고 공부한 결과 저는 졸업고사도 과 1등을 하여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고사가 끝나자 바로 추석연휴가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에는 학교에 나갈 수 없어서 집 앞 카페에서 혼자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준비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무지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하며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면접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년간의 기출질문을 뽑아 답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만큼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제가 응시한 직렬인 세무에 대한 기본 이론과 국세청에 대한 정보, 세무에 관한 이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 120개가 넘는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였지만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 실력이 많이 늘어 뿌듯했습니다. 실제 면접 당일이 되어 면접장에 갔습니다. 제가 면접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준비한 것에서도 많이 나왔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준비했던 것들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하다!”

저는 결국 11월 3일 9급 공무원 세무직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합격 수기를 쓰는 지금도 제가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도움을 준 제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신 도움들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인 분들이 주신 도움을 갚는 마음으로 항상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 열정, 그 이름으로 도전하라.



##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중학교 내신 성적 300점 만점에 291점이라는 높은 성적으로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들 왜 그 성적으로 그곳에 가려 하나며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야간 근무를 하시고 새벽에 늘 항상 피곤해하시고, 어머니께서 힘든 식당일을 하시고 돌아와 집에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녀인 제가 빨리 취업을 하여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고,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도 많이 반대하셨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는 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한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저는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들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업 후에도 충분히 대학교에 갈 수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전액 학비가 지원되기에 학비 지원을 받으며 학교 선배들처럼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선배들처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확실한 계획과 생각을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열정에 기름 붓기

학교 입학 후, 다양한 곳에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진로를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진로가 저와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사람에게 조언과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졸업생, 전문대생만 도전할 수 있는 공무원 제도로써, 평소 봉사정신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와 잘 맞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합격하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학년 때부터 매년 공직자 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역인재 공무원 제도는 모든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학교 성적이 좋아야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며 공무원 준비도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학교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몰두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진대회, 공모전, 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했고, 2학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반'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 1~2시간씩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밤 9

시까지 남아 자습을 하였습니다. 공부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무료 인터넷강의를 통해 해결했고, '사이버국가고시' 사이트에서 공무원 기출문제를 인쇄해 풀어 보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3학년 1학기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공무원 준비도 하며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공무원 준비를 위해 빈 교실에서 자습을 하므로 수업을 듣지 못한 교과를 따로 공부하고,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3학년이 되어 취업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쏟아지는 공기업, 은행, 대기업 채용 공고가 아른거렸고, 내가 공무원을 선택한 것이 맞는 결정인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기엔 제 꿈이 너무 가까웠고 또 공무원이 설령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19살이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목표했던 공무원이라는 꿈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 열정으로 위기 뚫기

공무원 필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준비해 온 꿈인데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허무하게 기회를 놓쳐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불안감을 나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마인드컨트롤을 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공부했고, 목표량을 다한 날에는 자기 자신에게 소소한 선물을 주고 칭찬을 하며 마인드컨트롤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

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하루 정도 스스로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친한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압박감을 조금 덜었습니다.

힘든 수험 기간 중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부족한 수업을 혼자 따로 공부해야 했을 때, 친구들이 제게 필기한 책을 스스럼없이 빌려 주고, 제가 힘들고 지쳐할 때마다 재미있는 농담과 항상 잘될 거라며 긍정적인 말을 해 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공부하는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먹고 싶은 것이 없냐며 챙겨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 저를 꼭 안아 주시고 달래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신 선생님, 친척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마지막 1도의 열정

필기 합격 후 정말 행복했지만, 아직 면접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비싼 돈을 주고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피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면접 프로그램에 맞춰 면접 담당 선생님들과 실전처럼 모의면접을 보며 철저히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합격한 친구들과 함께 서로 면접 질문을 해 주고, 핸드폰으로 연습 영상을 찍어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찍어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하는 것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의 면접 자세와 태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면

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영상을 찍어 연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서 따로 100개가 넘는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많이 어색했고 말 또한 조리 있게 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면접장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저의 생각을 잘 말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합격 발표를 확인한 후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고집 부릴 때 걱정 반 미안함 반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그간 힘들었던 기억과 그 속에서 함께 저를 응원해 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 지치지 않는 열정

합격 후 지금까지 많은 격려를 해 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돈을 털어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며 어머니께서 속스러워하셨지만 정말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봐 주며 취업 준비를 도와주고, 힘들 때 맛있는 것을 사 주며 힘이 되게끔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시간을 내어 제가 공부했던 저만의 공부 방법을 알려 주며 많은 조언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받

은 사랑을 그늘진 곳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 재직 3년 후에는, 입시설명회에서 들었던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통해 야간대학교에 진학해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열정, 그 이름으로 도전하라!

제가 공무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해 버렸다면 이렇게 취업 성공 수기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도전하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공무원이 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하고 싶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평생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렵고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도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 제도 외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주어진 것에 모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원하는 꿈을 모두 이루고, 뜻깊은 학교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VD, 나는 꿈을 이뤘다.



R=VD를 아시나요? R=VD란 ‘Realization Vivid Dream’의 약자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대기업 입사’라는 꿈을 꾸었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꿈을 실현해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은 특성화고의 영향이 가장 크기에, 고졸취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상상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발 빠르게 뛰어다녔던 저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 내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서 갈림길을 만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미래도, 진로도, 과정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은 중학교 3학년 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은 ‘인문계의 길’, ‘특성화고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두 갈림길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가고 싶다면 때는 이미 늦고 돌아가기 어렵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진학 고민에 시달리던 어느 날, 대전에 있는 특성화고가 중학교에 직접 찾아와 홍보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학교 중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를 홍보하는 선생님과 선배님은 본인의 학교에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대전여상 홍보 시간은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마치 ‘이 학교야!’ 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걱정은 성적이었습니다. 당시 성적이 중하위권을 달리고 있었기에 면접의 비중이 더 큰 특별전형에 지원해 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평소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선택한 갈림길에서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뒀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면접이자 시작은 많은 여운과 떨림을 가슴에 남긴 채로 끝이 났습니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합격자 발표 날,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합격 통보를 해주셨고 친구들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합격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나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갈림길에서의 나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며 굳센 다짐과 함께 특성화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 꿈을 그린다.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멋지게 노래하며 춤추는 가수, 글을 써 큰 서점 베스트셀러 칸에 드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며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저희 집안은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는 저를 위하여 야간 식당 일이며, 액세서리 판매 일이며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조금 더 어른스러운 딸, 걱정 끼치지 않는 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머니의 힘을 빌리기보다 스스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를 더욱 더 넓고 빠르게 경험하며 학업에 필요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들은 커 가면서 자연스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나의 꿈이자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졸업생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께서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큰 강당에서 대략 천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당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선배님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제게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과거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현재의 상황에 큰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 곰곰이 따져 보니, 제가 원하는 직장의 기준 1위는 급여, 2위는 복지였습니다. 저의 적성과 직장의 기준이 가장 적합한 곳은 ‘대기업’ 이었습니다.

그전까지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하나로 ‘대기업 입사’라는 큰 꿈을 그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 방, 학교 책상, 사물함 등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R=VD 나는 꿈을 이뤘다.”라는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배처럼 많은 후배들 앞에 서서 멋지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꿈을 머릿속에 그려 나갔습니다.

## ‘꿈의 퍼즐’을 완성해 준 나의 열정의 조각

퍼즐을 완성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퍼즐의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맞추지 않는다면 ‘완벽한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의 꿈인 ‘대기업 입사’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 후, 꿈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열정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라고 잭 웰치가 말했습니다.

취업에는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경험을 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질 때면, 망설이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해 보겠습니다.” 하며 모든 일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1학년 때는 다양한 동아리를 경험해 보고 싶어, 전공과목인 회계에 기초를 다져 줄 ‘회계원리 동아리’, 함께 모여 공부하는 ‘Funny study 동아리’, 봉사를 실천하는 ‘인터랙트 봉사 동아리’. 총 3개의 동아리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도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처음 입학하였을 당시, 온몸에 한기가 돋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문 앞에 굳건히 서서 학생들의 복장이 규율에 어긋나는지 검사하는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선배들을 보며, ‘나도 모범이 되는 학생이 되어서, 학우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고, 2학년 때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취업에 가장 필요한 기본인 성적, 자격증도 관리하였습니다. 성적은 상위 10% 대를 유지해왔고, 자격증은 방과 후 수업과 독학으로 1년 만에 12개를 취득하며 총 16개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꿈의 퍼즐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게를 홍보하는 ‘나레이터 아르바이트’, ‘백화점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 등 조금은 생소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소중한 만남은 제게 가슴 속 깊이 따뜻한 무언가를 남겨 주었습니다.

이뿐일까요? 저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어릴 적 꿈은 가수, 작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꿈을 포기해 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성장해 가며 꿈이 바뀐 것이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학교 행사에 춤을 주제로 참여하여 ‘특별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보고서대회, 효행글쓰기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릴 적 꿈인 글쓰기와 춤은 많은 도전과 성공을 안겨 주었습니다. 평일에는 열정이 넘치는 대전여상 이소영 학생, 주말에는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만족하게 하는 아르바이트생 이소영으로, 언제나 ‘열정’이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은 채, 2년을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3학년이 된 2017년 4월, 현대오일뱅크의 학교추천서가 들어와서 봄의 설렘을 가득 안은 채, 1차로 ‘교내 면접’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뽑낼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면 뽑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한 ‘나레이터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토대로 가게를 홍보하듯 술술 멘트를 외쳤고, 선생님들은 “정말 판매 아나운서 같다.”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뿐히 교내 면접에 통과한 저는 입사지원서와 함께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던 입사지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침착해 주어서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완성한 입사지원서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험 역시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한 권을 세 번 반복하며 노력한 결과, ‘합격’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면접이란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는데 설레발치지 말자며 면접 준비에 온 힘을 다해 몰입하였습니다.

취업지원부에서 총 103개의 면접 질문을 외우다시피 연습하였고, 독감이 걸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날에도 꿈을 상상하며 연습했습니다.

일생일대로 떨렸던 최종 면접의 날, 그동안의 나날들을 되새기며 저의 역량을 최대한 뽑아 면접에 응하였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6월 1일 저는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고 같이 기뻐해 줬지만, 그중에서 저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뻐한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집에서 합격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다 눈시울이 붉어지시곤 저를 꼭 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제 머릿속에는 2년 6개월 동안의 ‘열정의 퍼즐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쳐갔습니다. 작은 열정과 노력의 조각이 맞춰져 드디어 큰 꿈의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 **꿈꿔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8월 1일에 입사하여 이제 직장인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특성화가 점점 활성화되어 뛰어난 취업률을 보여도 아직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고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소영아, 실업계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 “실업계 가면 다 꼴통들만 있네. 취업해도 아르바이트 같은 곳이라.” 등 주변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은 가슴 속 깊이 상처로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상처의 한 마디는 저에게 ‘오기’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편견을 없애 줄 거야.’ 하며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었고, 반드시 꿈을 이루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계신 중학교 졸업 예정자 분들이 이 글을 보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는 20년을 채 살지 않았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를 겪으셨나요? 혹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도 않으신 건 아닌가요?

저에게 상처로 다가온 말을 내뱉은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저를 부러워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자신이 노력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른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왜 좀 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도전해 보지 못했는가?’입니다. 저는 대기업 입사가 꿈이었기에 여태껏 입사를 위해 뛰어왔습니다. 입사를 한 지금은 저의 부족함을 느껴 다방면으로 경험해 보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은 ‘공인중개사’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인식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식도 달라질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 지역을 만들고 지역이 뭉쳐서 나라를 만듭니다. 언젠가 뿌리 깊이 박힌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도록 모두 같이 꿈꿉시다! 특성화고 아자!

## 취업 곳이 피었습니다.



### 씨앗을 심기까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읽는 중학생들에게는 꼭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라고 말해 주고 싶고, 후배들에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광주여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말 진학 희망 고등학교를 정할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은행원이 꿈이었기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4%의 높은 내신 때문인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엔 아까운 성적이라며 모든 사람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추천했습니다. 그 말에 설득당해 결국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들이 나중에 쓰일 곳은 있을까?'였습니다. 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자 도저히 공부 가 되지 않았습니다.

### 싹이 돌아났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광주여상을 다니는 친구와 연락할 기회가 생겼고, 광주여상 선배가 한국전력공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을



가도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간 후 취업하는 것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전학할 방법을 찾아 4월 말에 광주여상으로 전학했습니다.

막상 전학 오니 중간고사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금융, 경제, 회계 용어는 저를 말 그대로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들이 실제로 회사에 가서 쓰인다고 생각하니 웬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회계가 제일 어렵다는 주변 친구들의 말에 회계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회계는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정독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께 여쭙 보며 공부했습니다. 회계는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교과서를 정독하며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께 여쭙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험부터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 3주 전부터 달력에 그날그날 공부할 과목을 적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에 따라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자신 있는 과목은 그 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성적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줄지만 않으면 시험공부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후배들도 계획을 세워 시험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 꽃봉오리를 터뜨리려면

1학년 때부터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은행텔러, 틴매 경테스트 등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에 힘썼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ITQ 3종, 전산회계 1·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무역영어 3급, ERP인사·회계 2급 등 여러 방면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로 하는 회사에 맞춰 자격증을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자격증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캠프, 금융감독원 경제교육,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경제교육 등 금융교육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 관련 커리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취업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취사모는 취업부 소속 동아리로, 매일 워크넷과 같은 고용 사이트에서 취업처를 찾아 문서화하여 담당 선생님께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땡큐! 선배님♥'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취업처를 찾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문서작성능력을, 땡큐 선배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사모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돋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레임 동아리에서 기자단을 맡았습니다. 프레임은 교내 모든 사진을 관리하고, 학기마다 '도란도란'이라는 학교 신문을 발간합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기 때문에 취미를 개발하며 동아리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팀워크를 발휘해 발간한 '도란도란'은 타 학교에 광주 여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기자단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

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저는 '영신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신원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이 공원에서 함께하는 보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도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을 건네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우선적으로 타 주니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려는 자세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한 번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세금문예 작품 공모전'에 출전해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 경력은 전력거래소와 공무원연금공단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니 면접관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신선한 답변을 할 수 있고, 곧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다방면의 경험을 쌓아 자신을 어필할 무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 드디어 활짝 핀 꽃

요즘 공공기관 채용이 NCS 체제로 바뀌면서 서류보다는 필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서류가 프리패스인 기업이 많아졌고, 필기에서 3배수 정도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기 준비는 1학년 때부터 NCS 문제집을 풀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 글을 빨리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 꾸준히 연습하면 글 읽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모의고사 국어를 풀어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NCS 문제집과 국어 모의고사를 병행하여 공부했습니다. 스톱워치를 활용해 15분에 20문제 풀기를 목표로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5문제도 풀지 못했지만 점점 20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NCS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공부할 때 꼭 시간제한을 두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기를 통과한 후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밝은 미소입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잘 웃는 게 최고입니다. 면접은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잘 웃고 정감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전력거래소 면접 때 “원래 그렇게 계속 웃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웃었습니다. 웃는 것이 어색하다면 1,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3학년 때 갑자기 웃으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식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하신 선배님들이 모두 차분하고 침착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 침착과는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너무 밝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된 것을 보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꾸며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분하고 침착한 척했으면 안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이 모두 엄마, 아빠뻘이시기 때문에 학생다운 대답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싸우면 어떤 식으로 화해하냐는 질문에, “네, 저는 먼저 다가가 사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번 체육대회 2인 3각 경기에서 같은 반 친구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나가기로 했지만 제가 왼발 먼저 나가는 실수를 저질러서 저희 반이 꼴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잘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른발 왼발 이야기에 엄청 웃으셨습니다.

면접을 볼 때 꼭 한 분씩 엄청 노력하시고 웃지도 않으시는 면접관이 계십니다. 저는 그 면접관님을 더 많이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실제로 전력겨래소와 공무원연금공단 면접에서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계시던 분이 제가 그분을 쳐다보며 계속 웃자 면접이 끝날 때쯤에는 끄덕끄덕도 해 주시고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계속 웃어 주는 면접관에게만 눈길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골고루 쳐다보며 웃는 것이 좋습니다.

##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끝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취업이라는 꽃을 피웠기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19살의 저에게는 꽃에서 더 나아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습니다. 3년 뒤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도 가야 하고,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놓지 않고 꾸준히 무언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1학년 때의 저는 학교에 적응하기 바빠 무언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봉사, 동아리 등 여러 경험을 했으면 합

니다. 이 경험들은 3학년 취업 준비할 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험한 내용을 잊지 말고 메모장에 꼭!! 적어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3학년 올라와서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1학년은 학교에 적응하기 바쁘고, 2학년은 자격증 준비로 바쁠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3학년 때 목표로 했던 기업에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취업 파이팅!

#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은 증명되지 않는다.



중학교 시절 저는 겁이 참 많았습니다. 학급 임원 선거나 체험 활동 신청의 기회가 와도 ‘어차피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도전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새로운 것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에 도전하고 성장하여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중학교 시절 반장 한번 못 해봤으며 남들보다 눈에 띄게 예쁘지도 않은 평범한 제가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세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사정이 안 좋을 때는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기사식당에서 부업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는 항상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선불리 말을 꺼내지 못해 마음속으로만 앓았던 저와는 다르게 여동생은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비가 인문계에 비해 저렴하며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당시 확고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인문계에 가서 목표도 없이 공부만 하는 것 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처음 입학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예전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니 변하자!'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든 그렇지 않은 분야이든 무조건 손부터 들고 보았습니다.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처음 도전을 하더라도 척척 성공하던데 현실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급 반장 선거에서는 탈락했고,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의 오디션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또한,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교내 프레젠테이션대회 예선에서는 벌벌 떨며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것이고, 가정의 도움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은 절대 증명되지 않아."라는 글이었습니다. 남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사소한 문장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문장을 다이어리에 적은 후 매일 매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도전하다 보니 슬슬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학기 때 떨어진 학급 임원 선거에서 2학기에는 회장의



로 당선되었고, 오디션에 떨어졌던 동아리에 다시 들어가 단장까지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작은 순간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원 선거에 떨어졌어도 친구들을 관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설령 청소 걸레를 대신 빨아 주거나, 급식을 대신 받아 주는 등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던 동아리가 아니었어도 주말에 하는 활동에 모두 참여하며 정성을 쏟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 눈에 띄게 뛰어난 능력을 지니지 않은 저라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을 해 오던 순간에도 우울감과 슬럼프가 왔습니다. 우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에 급급해 정작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지만 정작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는 턱 없이 부족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꿈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일들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선 무역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은행텔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식을 쌓고 실무능력을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두어야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분야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한 내신 성적을 유지해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10%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벅찼지만 힘들지는 않았습니

다. 학교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도 자격증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하면 그것이 몇 개가 되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능력을 키워 나가면서 직업에 대해 배워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했습니다. 회계사 분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 창업 프로그램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역 서류도 작성해 보며 나에게 맞는 꿈을 찾아 갔습니다. 그렇게 찾은 저만의 꿈은 '행복을 주는 은행텔러'였습니다.

KRX의 금융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가 힘겨웠지만 기적처럼 성장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경제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라는 것이 국민들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다음 순서로 직접 청소년 금융센터에 방문해 은행원 옷을 입고 가상고객을 응대하는 체험을 해 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은행텔러가 저의 꿈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웃는 고객의 얼굴을 보고, 다른 친구들보다 가장 빠르게 통장 개설 업무를 수행하고 나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상고객일지라도 첫 번째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며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으니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텔러가 되어 빠르고 친절하게 업무 수행을 해서 고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처럼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업무 처리를 하며 위로와 말을 건네고 적절한 금융 상품으로 도움을 주어 행복의 미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은행텔러라는 목표가 생기고 능력들을 하루하루 키워 나가다 보니, 성장하는 저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순간들을 거름 삼아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니 작년엔 떨어졌던 프레젠테이션대회에서 본선 우

수상을 수상하였고, 지금까지 도전했던 모든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작성했더니 자기소개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도전을 해도 걱정하지 않고, 웃으며 도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쯤 되 돌아보니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2년 연속 학급 임원, 학년 최고의 학생에게 수여하는 이화상, 각종 교내 대회 상장 등 예전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멋진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학급 임원과 동아리에 떨어진 경험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고 학급과 동아리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생활했습니다. 또한, 대회에서 실수를 하고 떨어져 보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을 고치고 그 다음 해에는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패는 그 순간 아프게 다가왔지만 돌이켜보니 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판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 예전이 라면 생각지도 못하던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이후로는 성공만 경험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원의 꿈을 갖고 여러 도전을 하면서도 꼭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금융 프로그램에 신청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은행 본사에 방문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성장했어도 저는 특출하게 뛰어난 인재도, 멋진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니깐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실패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닌 나를 발전시킬 양분이 될 것을 알기에 이러한 순간들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순간에 도전할 때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 가지! 제가 결국 꿈을 이루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IBK기업은행의 예비행원으로서,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도움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다짐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서움에 떨며 도전조차 겁내 하던 겁쟁이가 꿈을 이루고 이렇게 성공 수 기까지 적을 수 있게 변한 것은 딱 한 가지 덕분입니다. ‘실패하기! 넘어져 보기!’ 도전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는 무서움에 평범하게 인문계에 진학했다면, 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 보지 못했을 것이고 꿈조차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순간부터 용기를 내어 큰 선택을 한 것이니, 그 순간부터 저는 달리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게죠!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도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불가능은 영원히 증명될 수 없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그저 아픈 상처로 남지만, 계속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상처가 아닌 자랑스러운 흉터가 될 테니까요. 특출한 능력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통통한 외모 때문에 모두들 힘들 거라던 은행원의 꿈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실패를 통해 생긴 제 무릎의 흉터들이 저를 빛내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네요.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모두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 나의 꿈, 내 손으로 직접 그리자!



밝고 선명한 도화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채화, 크로키, 소묘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라면 도화지와 크레파스가 같이 있다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도화지를 채울 것입니다.

이처럼 도화지는 단순한 흰색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순수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볼까 합니다.

### “도화지에 저의 가능성을 그려 보았습니다.”

중학생 시절, 미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린 그림 과제를 보시고 저에게 미술부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특기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정밀 묘사를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정밀 묘사란, 한 물체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 아닌 자세히 관찰하고 형상, 원근, 명암 등을 자신의 노하우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택한 이유는 색이 화려한 수채화나 그런 종류의 그림이 아니라 오로지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쉬우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하는 일이 잦아 그림을 지우다가 지우개뿐만 아니라 도화기까지 찢어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밀 묘사를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라고 자책하기보단 저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미술실에서 생활하며 마지막 선생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종이 앞에서 펜을 놓지 않았습다.

그 결과, 늦은 출발이었지만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의 노력 끝에 공주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시 대회 금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서 얻은 첫 번째 상이었기에 자신감이 용암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도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에 다가서다.”

우리는 흔히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를 미리 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표지판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표지판이 없는 낯선 길에 들어가면 앞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때의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도 길을 헤매면서 불안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 저는 진학이라는 길을 걷다 헤맨 적이 있습니다. 미술 대회의 여흥이 떠나기도 전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술을 시작할 때의 가벼운 마음과는 달리 대회를 끝마친 후에는 마음속 깊이 정밀 묘사라는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미술에 관련된 학교를 진학하자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직업 특성상 보수가 일정치 않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에 간다고 생각하니 ‘대학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쯤 직업 전문학교 마이스터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관

심이 있던 전기·전자 분야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의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점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은 생각과 함께 미술을 잠시 접어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림은 이곳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밀 묘사가 아닌 제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여 멈추면 그 누구도 완성된 작품을 볼 수 없기에 화가는 다시 펜을 잡아야 합니다.

저 역시 단 한 번만의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마다 저는 여러 번 머릿속으로 완성하고 싶은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기업 최종합격 조효상’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 1단계, “나 자신의 스케치 작업, POH 법칙”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겉멋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술선수법의 자세를 통한 내면의 멋으로 뛰어난 인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매년 30시간 이상의 주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일 분량을 정해 공부한 덕분에 중학교 시절 항상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약속을 지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원만한 대인 관계를 더욱 중요시 생각했고, 자연스레 1학년 동안의 성적은 중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대다수 기업은 더욱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지원 자격을 성적 상위권 학생으로 규정하여 선발합니다. 반면, 저의 성적은 마지노선인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느낀 저는 성적 부진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이 하는 것 만큼만 만족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은 저의 ‘차별 없는 생활’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저만의 새로운 공부법, 학습실에서 나가는 마지막 친구보다 한 시간 더 공부하는 ‘Plus One Hour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2학년 동안 실천한 결과, 전교 2등과 전공 자격증 5개 취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2단계, “여럿이 함께 그림을 그려 보다

하나. ‘빠까뽀뽀’이란, 남들보다 빛이 나는 모듬이 되자는 뜻이 담긴 저희 팀명입니다. 매년 공주마이스터고에서는 전공 지식 관련 학습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저희는 PWM 제어를 통해 밝기를 조절하는 무드 등을 만들기로 했고, 저의 역할은 외관 제작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역지사지의 자세’를 좌우명으로 정해 여러 상황을 혼자만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회로 제작을 힘들어하는 팀원에게 LED에 따른 저항값을 알려 주었고, 부품의 극성을 알지 못하는 팀원에게는 회로 시험기의 사용법을 알려 줬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고 저희 팀 ‘빠까뽀뽀’은 동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 학급 반장을 하며 반을 이끌어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축제 때에, 반



장으로서 전교생이 만족하는 부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주제를 선정하였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반은 ‘꿀꿀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회의와 건의함 제도를 통해 음식 빨리 먹기, 음식 받아먹기, 손 안 쓰고 먹기 등 많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만족하는 부스를 성공시켰고 게임 부스 성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밀 묘사를 하며 한 가지 물체만을 그려와서인지 저의 모든 작품에는 배경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림은 혼자 그려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내가 속한 팀에 들어가 팀원들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협력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소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론 외롭게 혼자가 아닌 여럿이 그리길 원했던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림 속 배경을 채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 마지막 3단계, “내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다!!”

「유엔미래보고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를 예측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상상력이야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망원경(상상력)을 통해 본 모습을 모두에게 실현해 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연구하는 실험실을 찾아보니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기에 더없이 좋은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를 위해 ‘첫 번째가 최선의 노력, 두 번째가 최고의 결과’라는 다짐을 하며 앞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처음 시작할 때 선 긋기는 누구나 해야 하는 준비운동입니다. 저는 삼성에 필요한 준비 운동은 전공 지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은 전공 지식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PLC 제어, 시퀀스, 회로 설계 등 많은 전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전자기기, 전기, 전자카드기능사, SMT, 생산자동화 자격증들을 취득할 때면 정밀 묘사를 통해 길렀던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합격을 위해 인·적성검사, 자소서 및 면접 역시 틈틈이 준비했습니다.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한 정보들도 빠짐없이 파악했습니다. 마침내 삼성 공채 공고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면접날,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자신감이 넘쳐도 면접 당일 날에는 긴장감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순간 대기실에서 저의 이름이 들려왔고, 저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긴장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준비한 것과는 색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적절한 답변을 찾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면접이 끝나고, 그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모니터 화면에 나온 ‘설비 엔지니어직 최종 합격’이란 문구를 보며 그동안 밀린 보상을 한 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취업 성공이 담긴 그림입니다. 앞의 내용처럼 현재 저는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합격 상태인 제가 아닌 지금까지의 제 노력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택에 확신이 없는 미래의 마이스터들에게”

대다수의 고등학생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바람으로 인문계를 선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한 길이라면 당당히 걸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불합격이 반복되어도 저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꿈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새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을 향해 혼자 열심히 걸었습니다. 아니 혼자 외롭게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 때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곁에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 힘들 때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숨을 돌리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란 갈림길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꿈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 지름길을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름길을 앞서 걸어오면서 이 글 속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 봅니다. 마이스터고라는 길을 갈망하고 계신다면, 저의 작은 표지판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도화지 속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그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 Part 02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졸업생 부문

내 인생의 첫 마라톤 완주기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꿈, 滿發(만발)하다.

내가 바뀌는 순간, 세상은 나를 응원한다.



## 내 인생의 첫 마라톤 완주기



### ‘안녕하십니까. 꿈을 향해 달리는 마라토너 양초연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많이 연습하고 외쳤던 1분 자기소개 첫 문장입니다. 3학년 때는 교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정장과 구두 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야 할 청춘과 달리 저의 20살은 너무나 우울했고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의 불합격으로 고졸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 직전 저는 공공기관 ‘최종 합격’으로 당당히 사원증을 목에 걸며 제 인생의 첫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첫 마라톤 완주기 들어 보시겠습니까?

### 똑똑, 특성화고의 문을 두드리다.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기까지 큰 계기나 다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성에 맞지 않는 국영수를 새벽까지 공부하며 스트레스를 받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인근 특성화고에서 공기업, 증권사, 은행 등에 취업했다는 플래카드를 보며 ‘나도 내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순천청암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 2013년 3월 특성화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473등 → 1등 → ‘꿈을 그리다.’>

입학 첫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이재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를 믿고 1년간 다들 함께 잘 지내 봐요~’ 뭔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 앞에서 있는 담임선생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급 실장을 맡았고, 담임 선생님을 도우며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첫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전교생 499명 중 473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우선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상업경제, 금융일반, 회계원리 등 상업 과목은 오히려 쉽고 이해도 잘했지만, 기초가 부족했던 수학이나 영어는 공부하는 데 있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알려 주는 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사회생활의 기본인 조직 융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취업하신 선배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막연히 취업의 꿈만 가지고 있었던 저는 선배님과 대화를 통해 간절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제 꿈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 첫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경험 쌓기

1학년 말 금융권, 공기업 등 입사를 준비하는 금융공채반 모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학 때도 등교해 자격증 준비와 NCS 필기 준비를 해야 했지만, 방학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 망설임 없이 금융공채반에 지원했습니다.

방학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되는 펀드투자상담사와 은행텔러 수업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앞에서 이끌어 주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외에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취업 캠프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활동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겨울방학 때 서울로 기업 탐방을 가서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MS 한국지사를 방문했던 경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또 이런 기업을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 외에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경시대회 또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금융권 면접을 볼 때 간혹 경제 용어를 물어본다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비즈니스 골든벨과 시사상식 경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상을 받진 못하더라도 참가하면 단어 몇 개라도 외우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용어도 공부하고, 상도 받으면서 일거양득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제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라고 물어본다면, 주저 없이 "경험이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학교-집-학교-집이 반복되는 일상인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경험을?"이라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경험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이 되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둘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스펙 갖추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밤 10시까지 공부하며 취득했던 자격증은 3학년 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저 자신을 빛내 주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20개 취득하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융, 회계, 컴퓨터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개의 자격증시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컴퓨터시험을 본 후, 오후에는 회계시험을 보며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놀지 못해서 우울하기도 했지만 제 꿈을 위해서라면 이 순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계속 기록되는 자격증을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지원을 하다 보면 자격증 유무에 따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자신의 스펙을 한 단계 UP! 시켜 주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셋째, 나를 알고, 나를 소개하기

다양한 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저의 상품 가치를 높였다면, 3학년 때부터는 ‘양초연’이라는 상품을 면접관들에게 소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갑자기 저 자신을 소개하려는 글을 쓰려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 제가 걸어 왔던 삶의 발자취를 다시금 뒤돌아보았습니다. 학창 시절 체육대회를 하며 느꼈던 단합, 비즈쿨 골든벨에 참가해서 수상했던 경험 등은 모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된 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어진 기회를 잡는 준비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 탕! 취업을 향한 출발

3학년 때, 드디어 취업이라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언제 총소리가 울릴까 바가슴이 콩닥콩닥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할 거야, 잘할 거야.’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총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탕! 그렇게 총소리가 울렸고, 저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첫 공고였던 KB국민은행에서 서류 탈락을 했던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면접에 있어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저는 추천받아 쓴 국민은행 서류전형만 합격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였고, 그 후로도 저를 맞이하는 것은 “귀하의 자질은 우수하나~”로 시작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문구였습니다.

나를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던 저는 1등은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웃으며 취업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제 결과물을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보여 주며 인정받고 싶었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꿨던 것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출발선

에서 함께 달리던 친구들은 어느새 도착했는지 결승선에 서서 웃고 있었고, 저를 응원해 주던 사람들은 지쳤는지 하나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넘어지고 다치며 3년간 뜨거웠던 열정은 빠르게 식어 갔습니다. 그렇게 2016년 2월 순천청암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2016년 7월, 첫 마라톤을 완주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슬픔의 눈물인지 '백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저의 현실에 대한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눈이 텅텅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졸업식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끌어 주는 선생님도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친구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 신분이 아닌 20살 어른으로서, 재도전해야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MT며 OT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직장인 친구들이 돈을 벌 때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접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 손님을 응대해서인지 실제 면접장에서도 전처럼 많이 떨지 않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NCS 필기 공부를 하며 식었던 저의 열정은 다시금 뜨겁게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한 지 5개월 후 2016년 7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최종 합격하며 제 인생의 첫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졸이라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

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부터 고졸이라 인식하고 발전이 없다면, 당연히 고졸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야간대학교 경영·회계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공을 더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분야의 전문성을 더 갖춰서 회사에 더욱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발전한다면 고졸이라고 편견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들 많이 힘드시고, 힘드셨죠? 저도 이 글을 쓰며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이 짙끔 흘렸으며, 혼자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문구를 통해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만 견뎌 내면 반드시 예쁜 꽃을 피우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글을 쓰며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기쁩니다.

꼭 자신과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라톤과 앞으로도 계속될 ‘양초연의 마라톤’을 응원하며 저의 첫 마라톤 완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 you can live your dream

중학교 3학년 때 가세가 갑자기 기울면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고,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김동연 장관님의 눈먼 열정이라는 강연을 보았습니다. 장관님은 가난한 삶 속에서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살아 있는 신화로서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정책, 드림장학금 등 다양한 정책도 만드셨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희망사다리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제겐 큰 희망이었고, 저는 청양고등학교 특성화계열에 입학하였습니다.

청양고등학교 전산반 동아리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배우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처음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상업경진대회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여 얻은 상장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눔 장터와 소외 계층에게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남에게 도움 주는 일이 보람차고, 도움을 받

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꿈 없이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저는 학교에서 방문한 공직박람회에서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동연 장관님의 특별 강연과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들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기회가 많은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역인재 9급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많은 직렬 중에서 직렬 선택 또한 쉽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기업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저의 아버지께서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과 농산물 가격 폭락, 운영 자금 등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농민의 대표로 일하면서 저에게 항상 사명감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희생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아버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무엇보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국어와 영어 등의 시험과목을 배우는 것이었습

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던 저는 주변에 마땅한 배움터도 없었기에 집을 떠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 부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하루 5시간씩 농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김장 배추를 나르고 수확한 농작물의 하우스를 정리하면서 모은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으로 학원을 수강하고 침대와 책상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을 잡으며 알뜰살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임한 첫 모의고사는 그저 절망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했고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네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어?”라며 항상 응원해 주고 힘들 때면 밤낮 없이 격려해 주는 친구가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 고졸? 그거 얼마 못 가는 거 아니야?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결코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며,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취업의 기회가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오히려 기회이자 특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구체적인 꿈이 없던 저는 마침내 고등학교 진학의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오는 입시설명회를 들으며 진학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특성화고는 저에게 희망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고졸 신화를 기록한 김동연 장관님의 열정 넘치는 영상을 보고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세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에게 무료 세무 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여 세금 업무에 대해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일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당시, 부모님께 특성화고에 가서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반대를 하셨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도 손색이 없는 성적을 갖고 있던 저의 선택은 부모님께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졸취업 성공 사례와 코레일과 삼성생명 등의 기업에 합격한 선배들의 도움과 굳건한 저의 의지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졸채용? 그거 공부는 하지 않고 공장이나 가고 승진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에게도 이룰 수 있는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단지 출발이 서툴지만 남들보다 먼저 사회에 뛰어들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고졸취업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후배 여러분! 이 길이 어찌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 길이 있고 선택한 길이 있다면 방향하며 물러나기보다는 용기를 갖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분명 길을 가는 도중에 거대한 오르막길을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잠깐의 괴로움이고 잠깐의 아픔입니다. 그 오르막길만 넘으면 내리막길을 내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종착지에서 역경을 견딘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그 어떤 선택보다도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요?

## 1그램의 용기, 희망, 그리고 도전

「1그램의 용기」 바로 한비아 작가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언가에 두려움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두려움이 자신의 용기가 부족했거나 자신이 도전했던 일의 결과가 무서워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계속되는 불합격에 혹시나 이번에도 떨어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밤, 이런 친구들에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이제 1그램만 더! 한 발짝만 더 가면 돼!”라는 말 한마디 해 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3학년 10번도 넘는 불합격에 울고, 좌절을 하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난 왜 자꾸만 떨어질까?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겠지? 그 수많은 합격자 중에 내 이름 하나만 있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자 다짐을 하고 집을 떠나 대전에서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실 불을 켜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차가운 나무의자에서 하루 17시간이란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몸이 견디지 못해 잠시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까닭에 시험을 포기할까 생각을 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1그램의 용기」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고, 세상에서 전쟁과 가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한비아 작가가 봉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읽고, 나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게 쌓인 이 1그램의 ‘용기’는 자신감 있는 저를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 그 1그램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으며 한번 해 보자는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합격자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하루만 더!

## 취업하면 성공?

공무원에 합격한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넌 공무원 합격했으니까 성공했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 말고 다른 어느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업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나는 이 회사에 취업해서 어떤 인재가 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취업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단지 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착각하며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도 취업을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왜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진정 이 회사를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취업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고 꿈에 대한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을 위해 다가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꿈을 이룬 위대함이란 특별한 이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것도 아니고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고, 펀드 매니저, 은행원 등 취업을 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갖고 도전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고 싶어 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나를 알면 고쳐야 할 점이 보이고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꿈은 아닙니다. 취업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훗날 중소기업과 소외 계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국세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는 전산세무 1급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성취하고 다음 꿈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꿈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you can live your dream! -

## 꿈, 滿發(만발)하다.



### 특성화고등학교에 씨앗을 심다.

아파트 화단에서 가족들과 꽃을 가꾸며 작은 텃밭을 원했던 소원은 제가 직접 설계한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친구들은 발아를 준비하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잠시 ‘발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내가 만족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대로 다른 친구들처럼 어영부영 인문계에 진학한다면 꿈을 이루고 싶은 지금의 열정이 식어 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저만의 지름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고, 졸업 후 특정 분야에서 최고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하나인 충주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서를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원서를 넣을 거냐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입학할 한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학생으로 졸업할 자신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렇게 공업고등학교에서 홍일점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3학년에는 여자 선배가 아

무도 없었고, 1학년 신입생 중에서는 제가 6년 만에 입학한 단 한 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해야 하고, 학교에는 온통 남학생밖에 없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못하는 게임을 연습해 가며 친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던 친구들은, 대화를 시도하면 자리를 피하던 예전과 다르게, 먼저 말을 걸어 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사항을 빠짐없이 필기하는 습관은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더해져 입학 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게 해 주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기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들을 토대로 요점정리를 만들고, 혼자 자격증 공부를 하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니 많은 친구들이 성적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친구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어 2학년이 되었을 때 더는 '외톨이 김민지'가 아닌 학급 공동체를 이끌어 갈 '학급 실장 김민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 좌절 속에도 뿌리는 자란다.

저는 사실 반 친구들, 아니 전교에서 가장 머리가 나빠지도 모릅니다. 남들만큼 하기 위해 2배의 노력을 하고 남들을 뛰어넘기 위해 4배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가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느려 설명을 다시 듣기 위해 교무실에 찾아갈 때마다 선

생님들은 항상 귀찮은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 주시고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다른 과 친구들도 알만큼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했습니다. 교내 대회 공고가 올라오면 꾸준히 참여하여 수상 목록에는 항상 제 이름을 남길 수 있었고, ‘제13회 특성화고교 사장되기 창업대회 Be the CEO’s’라는 교외 대회를 통해 금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역할 분담과 리더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시험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니 항상 해를 보며 다음날에 잠드는 일도 다반사였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ITQ 자격증을 비롯해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전공 자격증 3개를 취득해 받은 기능상은 제가 잠을 자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3학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기에 기고만장하게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에서 받은 통보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수정하고 수정했지만, 취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다른 친구들은 마음을 돌려 부모님의 도움으로 하나둘 배움의 길을 찾아 대학교에 지원하기 시작하였지만, 집안의 도움이 되기로 부모님께 약속드렸던 저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없이 넓어 보이던 아버지의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아서 더욱 열심히 취업을 목표로 달려 왔던 3년은 그렇게 졸업으로 이야기에 마

침포를 찍어야 하는 듯했습니다. 이런 저를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제안한 것은 바로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이었습니다.

### 충정북도교육청의 새싹이 되다.

3년 하고도 반년을 더한 끝에 결국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자리에 앉고 문을 닫는 시간에 직원들과 같이 퇴근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재수’를 하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본 메신저 창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밖에 없는지 당장이라도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다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여행을 다니고,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누리며 20살을 보낼 때 저는 다시 혼자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필기시험은 전공과목인 건축구조와 건축계획 그리고 보통과목인 물리로 이루어져 있어 5과목을 공부하는 일반 공무원시험보다 한발 앞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2과목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당시에도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걱정을 덜 수 있었지만, 문제는 물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저에게는 6년간의 공부를 다시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말을 되새기며 책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만발의 준비를 하니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며 만나 주신 물리 선생님과 문자로 모르는 문제는 주저 말고 질문하러던 담임선생님, 묵묵히 응원해 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



하며 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긴 싸움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서관에 갈 때마다 너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아버지가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연락할 기세로 전화를 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걸 보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결실을 맺은 꿈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사이의 갈림길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길을 선택했고 마지막엔 도착지로 가는 하나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걸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무조건 옳고 이 길로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고, 도착한 곳에서 만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만족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바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란, 메짐성에 강하지만 불에는 한없이 약한 철근과 불에 약하지만 메짐성에 강한 콘크리트가 어우러져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고열 속에 놓인 철근과 같습니다. 주변의 뜨거운 열 때문에 자칫 녹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을 보완해 줄 콘크리트를 만난다면 그 어떤 구조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고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주한 사회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대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저만의 건물들로 채우며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길에서 만난 좌절과 실패에 무너지지 마세요. 툭툭 털고 일어나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다 꽃이 되어 있을 거예요.

# 내가 바뀌는 순간, 세상은 나를 응원한다.



## ‘시련은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많은 사람이 말한다. “여자가 설비 엔지니어를 한다고?” 평범한 남자들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 일을 내 미래로 정하기까지 사실 그다지 큰 고민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겁이 없었다고 할까? 나는 그 선택에 후회 없이 지금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설비 엔지니어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집은 대학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혼 가정에 아버지의 막노동으로 일곱 식구가 생계를 간신히 이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무렵 더 악화된 가정환경을 뒤로 한 채, ‘그룹홈’이라는 사회복지 시설로 가게 되었다. 그 속에서 나를 정성껏 길러 주시는 원장님과 이모를 만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룹홈 원장님의 추천을 통해 국내 유일 반도체 관련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를 알게 된 것이다.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높은 취업률, 첨단 실습 환경 등 고교 졸업 후 바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어려운 형편을 고려한 최적의 학교였다. 그렇게 나는 ‘충북반도체고 입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다.

목표를 그려 놓으니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고 전에 없던 학구열도 샘솟았다. 쉬는 시간 때면 질문하기 바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했다. 그리고 꾸

준한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성적은 나날이 상승해 갔다. 입학 당시에 상위 60~70%를 밀돌던 성적은 한 번에 30%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15%, 10%에 이어 상위 5%로 수직 상승해 갔다. 그 결과 꿈에 그리던 충북반도체고 최종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 ‘내 인생의 트럼펫린 충북반도체고’

중학교 생활이 진로 탐색의 시간이었다면 고등학교 생활은 나의 가치를 높여 줄 다양한 경험을 맛보는 시간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능 영재반’이었다. 입학 전 교육 등을 통해 입학과 동시에 ‘기능 영재반의 정보기술’ 동아리에 들어갔다. MS-Office을 기반으로 한 Word, PowerPoint, Excel, Access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익혀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프레젠테이션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고, 경제 체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 한경경제체험대회에 참가하여 공업 계열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충북반도체고에서는 1, 2학년 때 전기, 기계 등의 기초 요소 기술을 학습하고, 3학년 때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 메인テナンス 교육을 받게 된다. 다소 폭넓어지고 생소한 과목들이 많아 힘이 들기도 했지만, 전문적인 교과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소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8대 공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제조 공정 수업은 매우 흥미로웠다. 반도체 기업체에 종사하셨거나 파견 교육을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경험이 담긴 수업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고, 회사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값진 수업을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글쓰기도 좋아해서 미래직업설계창작대회 대상(교육부장관상), 디딤씨앗 통장 수기 당선(보건복지부장관상), KBS강태원복지재단 나눔 수기 최우수상 등 각종 글짓기, 수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해외 체험 활동도 했는데, 중국교환학생(학교)을 시작으로 중고생방일단(교육부), 베트남국가간청소년교류(여성가족부)등의 사업을 통해 총 3곳을 학교 및 정부의 지원으로 다녀왔다. 이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부족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내 생각과 느낌을 영어로 말할 수 있었고, 각 나라의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젠 세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러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인재상(대통령상)에 최종 선발되는 영광도 이루었다. 내가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오지 않았으면 이 모든 행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난 늘 감사한다.

### ‘수혜자에서 조력자로’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란 덕에 내가 남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여긴다. 고등학생 때에는 다른 그룹홈에 봉사를 하면서 상담 및 공부를 도왔고, 방학마다 장애인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길을 걷기도 했다. 오지랖 넓은 나는 학우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취업지원부’를 개설했고 학생회 ‘취업지원부장’을 맡았다. 취업 멘토링을 통해 후배와 친구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희망을 돋우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첨삭 등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모습이 뿌듯하고 좋았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

는지를 작게나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고졸취업, 마이스티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졸취업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취업 멘토링을 이어 가고 있다.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4군데 정도 사회 약자를 위한 정기 후원도 하고 있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지금도 부서의 막내로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동안은 봉사 와 기부 등을 통해 사회의 어둠을 밝혀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갓 스물에 여성 설비 엔지니어가 되다’

고교 졸업 후, 이제 갓 스물이라는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입사하였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이 큰 회사의 값비싼 반도체 설비를 유지, 더 나아가 보수, 개선하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다. 더군다나 내가 배치된 팀은 나를 제외한 신입사원 모두 대졸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나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다. 신입 동기 모임을 하면 ‘MT’, ‘학점’등 대학교 관련 이야기로 가득했고, 소외감은 외로움으로 번져 갔다. 교육을 마치고 MI라는 파트에 배치되었다. 파트 선배들은 어린 나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특히 사수 선배와는 13살 터울이었지만 성격도 잘 맞고 얘기가 잘 통했다. 좋은 분들을 만나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비는 그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단단하게 무지개 핀 회사 생활을 벌써 3년째 이어 가고 있다.

“신입 설비 엔지니어는 3년간 선배들의 월급을 나눠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격한 공감을 하고 있다. 선배들은 자기 업

무시간도 바쁜데 거기다가 신입 사원을 교육까지 시켜 줘야 한다. 사소한 근태부터 설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 주고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고집적화되어 가고 있는 반도체 기술엔 작은 실수도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은 후배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게 선배의 땀으로 이루어진 지식과 경험을 나눠 받고 월급을 나눠 받으며 나는 성장했다. 내년이면 4년차가 된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하곤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선배들의 월급을 빼앗지 않겠다는 다짐이 나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입사 초기에 나는 몸집이 왜소한 편이라서 처음엔 간단한 설비 Error를 조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했다. 나보다 큰 설비들을 열고 닫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실력을 쌓아 갔다. 안 되면 반복을 해서라도 몸으로 익혀 갔다. 새로 얻게 되는 지식이나 방법을 꼼꼼히 메모하고 읽어 보기를 반복했다. 이제는 웬만한 Error 조치 및 PM(Preventive Maintenance 예방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신입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1인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를 벌써 2년째 이어 가고 있다. 이슈가 발생하면 선배들에게 물어보기에 바빴던 나는 점차 성장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이어 가고 있다.

나 혼자만의 노하우도 생겨 일에 적용하고 있다. 내가 알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때론 직접 검색해 보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작지만 일의 효율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또한, 보고서 및 각종 문서 작성을 할 때면 학교에 다니면서 익힌 MS-office 능력을 활용하며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나는 10년 넘은 베테랑 선배님들 앞에서 아직 한참 부족하다. 그래서 더 나아갈 길이 아직 멀지만, 그 여정이 난 즐겁다.

“여자라서 못 한다.”라는 말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 설비 엔지니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점점 고도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기술 앞에서 여성의 세심함, 꼼꼼함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여성도 잘 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나도 그 생각에 한몫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 ‘버킷리스트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

나는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설비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다. 또한 노래 부르기, 제과, 글 쓰기, 여행 등의 취미생활도 상당하다.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설비 엔지니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평생직장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선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주 1회 정도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또한, 영어는 전화 영어 등을 통해서 점진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영어는 실제로 설비 업무를 하는 데에도 필연적이다. 설비 업체가 대부분 외국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설비 엔지니어는 타 직군 대비 어학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나는 그 틈새시장을 노려 어학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설비 업체와의 소통에 이바지하고 싶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도 공부하고 있다. 퇴직 또는 정년이 되어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차리는 일이기 때문이



다. 직장을 다니며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공부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 '고졸취업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도 얼마 전부터 하고 있다. 예비 고졸취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개설하였다. 나의 경험과 고졸취업자들의 경험담이 모여 고졸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을 할수록 도와줄 것이다.

뮤지컬 동아리, 홈베이킹 등을 비롯한 취미생활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따금 친구 생일이나 만남이 있으면 쉬폰 케이크나 머핀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한다. 그리고 에세이를 써서 남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앞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나는 도전을 계속 이어 갈 것이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점에 늘 감사한다. 그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가 바뀌는 순간 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그저 어려운 가정환경만 탓하며 좌절했더라면 삶은 계속 우울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시련들을 기회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세상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지금 과거의 나처럼 시련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 속에 감춰진 진주 같은 기회를 찾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Part 03

#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성인 부문

'누구의 동생'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반대했던 특성화고 입학, 두 번의 고졸취업 성공신화를 이루기까지  
기간제교사에서 산업체 우수강사 → 취업지원관 →  
3학년 담임(취업 업무)까지



## ‘누구의 동생’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중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만 간다는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순탄한 인생만 사는 듯했던 나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금, 내 미래는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과연 취직은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 동생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공기업에 근무 중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나와 비교되며 자라 왔고, 중학교 때는 이름이 아닌 ‘누구의 동생’으로 불릴까 봐 나와 같은 중학교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말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런 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며 자신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당히 합격했다. 3년 후, 수많은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인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되었다.

내 동생은 공부 성적에 대해서 항상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다.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고, 나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항상 상위 15%를 유지하며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하기에 충분한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동생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공부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그런 사람들을 이겨서 좋은 대학에 갈 자신도 없고, 계속 입시 공부만 하는 것도 싫어요. 저 마이스티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할래요.”

부모님께서서는 정말 많이 놀라셨다. 동생이 마이스티고를 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서는 동생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동생은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께 자료를 요청하며 마이스티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마이스티고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점점 추려 나가다가 마지막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주변 사람들은 동생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인문계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왜 마이스티고를 가는지, 대학 캠퍼스 생활은 못해 보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집에서 독립하면 힘들지는 않을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동생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누구보다도 동생 본인이 가장 많이 걱정되고 힘들었을 것이다. 나와 부모님은 “너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곳곳이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응원했다. 그래서일까. 학교 기숙사에 입사하던 날 동생은 “꼭 성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탓에 고등학생 시절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

했다. 하지만 간간이 SNS에 업로드되는 사진 속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며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던 동생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중학생 때에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공부에 관한 말을 꺼낸 적 없던 동생이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토익 600점을 넘어야 한다며 나에게 공부법을 전화로 물어보기까지 했다. 이런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웠다. 난 아직도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동생은 벌써부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였다.

그런 열정이 있어서였을까. 동생은 만 17세의 나이로 중부발전소에 최연소로 합격하였고, 1년 후에 회사를 다니며 준비한 한국전력공사 채용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나보다 어린 나이에 입사와 퇴사를 겪은 동생은 명절날 오랜만에 만났을 때, 멋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친척 어른들과 직장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동생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누구의 동생’으로 불릴까 봐 걱정했던 내 동생은 이제 자신의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명함을 당당히 내밀며 멋지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동기들과 모여 하소연을 할 때 가끔 동생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리 동생은 마이스터고 가서 지금 한국전력공사 취직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 동기들은 너무나 부러워한다. 가끔 누군가는 “나도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남들 다 한다고 공부에만 전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텐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동생처럼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자료를 조사해 가며 내 길을 찾았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하겠다. 동생의 취직 성공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개

척했던 용기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합된 결과이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고졸취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나 역시 동생이 마이스티고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학력, 고스펙과 업무능력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 입증되며 여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겠다는 마이스티고의 취지가 점점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안다. '고졸취업'이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빨리 파악하여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을 동생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을 느낀다.



## 반대했던 특성화고 입학, 두 번의 고졸취업 성공신화를 이루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졸취업에 성공한 두 딸의 엄마, 최순화입니다. 현재 저희 큰딸은 작년에 삼성생명서비스에 입사하여 1년 넘게 잘 근무하고 있고, 작은딸은 올해 11월에 (주)한화, 한화무역에 입사하여 설레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성공적인 고졸취업을 하여 남들로부터 아이들 잘 키웠다는 찬사를 듣고 뿌듯해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특성화고를 인문고와 다른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준이 낮은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문계고등학교에 보낼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큰딸이 중학교 3학년 말, 고등학교 입학할 준비하던 무렵에 갑자기 특성화고등학교인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강력한 의지로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딸과 함께 학교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직접 방문해 학교 구경도 해 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보니, 여러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딸의 적성이나 진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라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된 큰딸은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는데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직접 학생회 선도부를 지원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를 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며 부지런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지만 딸은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선도부로서 책임감도 갖게 되다며 열심히 했고 그 모습을 보며 대견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개근이 중요하다며 아픈 날에도 꼬박꼬박 학교에 나가 끝내 3년 개근상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만족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딸은 2,3학년에는 직접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며 열심히 학교 홍보도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 없는 딸이었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후배들에게 학교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알려 주고 싶다며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시킨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큰딸이 졸업하기도 전에 작은딸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던 작은딸이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사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중에 큰딸이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저도 큰딸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의 분위기나 취업 시스템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함께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딸도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활동에 소극적이던 작은딸이 신입생 형성평가에서 상을 타게 되면서 조

금씩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신 관리부터 자격증 취득, 각종 경진대회 참여 등 학교생활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작은딸은 3년 동안 학급 회장,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을 연임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한 결과 취업도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딸들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취업 시스템이나 여러 프로그램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한 딸들은 학교에서 전문 교과목을 배우며 적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딸의 경우에는 현재 금융계열인 삼성생명서비스에 재직하며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융일반, 상업경제 등의

또한, 작은딸의 경우 현재 재무관리팀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배운 회계 과목들에 재미를 느껴 전산회계 1급, FAT 1급, ERP 1급 등의 회계 자격증을 따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문 교과목들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 한 번 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시킨 것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문 교과목들도 도움이 되었지만 학교의 다양한 경진대회 또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장님되어보기 경진대회라고 해서 학생들 스스로 상품 선정부터 홍보, 판매, 회계 등의 모든 마케팅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며 발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스피치 경진대회 등의 좋은 경험들이 면접을 볼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딸들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도 비싼 학원 대신에 학교에서 지원해 준 무료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취득했기 때문에 교육비 면에서도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딸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 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연습 등등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아리,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모두 지도해 줘서 매우 수월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딸들의 진로를 위해 학교 진로 설명회는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담임선생님 및 취업 담당 선생님과 끊임없이 상담하여 딸들의 고민을 덜어주었으며, 딸들이 힘들어할 때는 위로도 건네며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항상 딸들을 믿어 주던 마음 덕분인지 두 딸 모두 그동안의 노력에 걸맞은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굉장히 대견하고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졸취업으로 사회에 나가 혹시 무시를 당하고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졸취업이 활성화 되기도 했고 오히려 더 선호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대졸사원과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와 연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큰딸은 입사 후 1년 반 가까이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3년을 채워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능력을 더 인정받기 위해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딸은 입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맡은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에 일찍 나와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겠지만 딸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능력을 점점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항상 딸들을 응원하고 있고, 딸들의 무궁무

진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인문고에 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결과는 못 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으며 입시 준비를 하다 성적에 맞춰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학과를 선택하여 진학을 했겠죠. 진학을 해서는 취업 준비로 스펙을 쌓다가 취업 전쟁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지금의 수많은 대졸자 취준생들과 나란히 했을 것입니다.

저희 두 딸들은 특성화고라는 다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저는 딸들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시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결정 중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자녀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학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처럼 특성화고등학교의 능력을 믿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서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시길 기원합니다.

## 기간제교사에서 산업체 우수강사 → 취업지원관 → 3학년 담임(취업 업무)까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JOB아라! 취UP!’이라는 학교의 취업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기간에 수많은 제자와 인연을 만들었다. 그중 잊을 수 없었던 아이들,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취업 일기를 쓰려고 한다.

### 들어가면서

2011년 4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파견 나가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복직하시는 바람에 토목과 2학년 담임은 2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말쑥꾸러기 녀석들에게 공을 쏟느라 암전하고 손 안타던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하루였다. 나에게 주어진 담임이란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신경을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2012년 3월, 학교에서 취업 담당 선생님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우수강사를 선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첫해 나는 설계사무소에서 오래 일한 경력으로 아이들에게 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아쉬움이 컸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날 기회라고 생각해서 도전장을 냈다. 지원자

중 홍일점으로 원서를 내면서 웬지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꿈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새로운 분야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교사가 아닌 산업체 우수강사로 만난 것이었다.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내가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다시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 두 달 후,

작년에 우리 반 학생 중 문제가 많았던 복학생이 한국철도공사에 합격을 했다. 일 년 전부터 정신 차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녀석과 토목과 학생들 여러 명을 데리고 인·적성 준비를 시켰는데 다섯 명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 산업체 우수강사로 아이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면접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자체적으로 교재도 만들었다. 한국철도공사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인성 면접, 전공 면접 등 며칠을 함께하다 보니 답임으로서 지켜봤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차를 통과했던 다섯 명 중 그 복학생 한 명만 합격해서 아쉬움도 컸지만 그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 관련 회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며칠을 면접 준비를 했던 순간들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2012년 11월,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아이들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공무원 합격자도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 있는 공기업 중 전북개발공사를 포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적공사 등에도 다수 합격하여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씩 잘 내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2013년 4월. 산업체 우수강사로 근무한 첫해에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나 스스로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전문적으로 취업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는 취업지원관이 되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2014년 2월. 또 한 번 정들었던 학생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몇 지게 양복을 차려 입고 취직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돌아온 등직한 학생들과의 이별의 순간. 1년 동안 고락을 함께했던 학생들과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15년 10월. 전주공고 커리어포트폴리오 발표대회를 진행하는 날이다. 커리어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역량기반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자기역량기반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계속 E-mail로 피드백을 하며 아이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나갔다. 전년도 커리어포트폴리오 발표대회 수상자들이 출전한 중소기업기술인재대전에서는 2등을 수상하여 50만 원의 상금도 수상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창업 챌린지에서는 쟁쟁한 대학생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의 영광을 수상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전주공고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아 뿌듯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로 선발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 경험이 별로 없던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PT 면접에 대한 지도를 꾸준하게 해서 학생들의 실력은 많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더 긴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연습에서는 서툴렀어도 실전에서 너무 잘해낸 학생들도 있었



다. 이런 활동들이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2017년 3월. 3년간의 기간제 교사, 2년 동안 취업지원관 업무를 마치고 이듬해 나는 다시 기간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취업 담당자로서의 업무능력을 인정해 주셨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하우가 대단하다며 교장선생님께서 기간제 교사인 나에게 3학년 담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주셨다. 부담도 되었지만 5년 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담임 업무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잘해 보자며 스스로 다짐을 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담임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다짐을 하면서…….

2017년 4월. 공무원 준비를 하던 인성이가 돌연 공무원반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인문 교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공무원 공부를 하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내가 본 그 아이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기업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다. 차근차근 한국사를 공부하고 NCS를 공부해 보자는 내 의견에 다행히 인성이도 그렇게 해 본다며 다시금 의지를 다잡았다.

### 2017년 3월 ~ 현장실습 파견 기간 중

2학년 때 진로 희망이 제과 제빵사라는 대원이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이틀에 한 번씩은 지각을 한다. 그래서 대원이와 점심시간에 외식을 하며 상담을 했다. 2학년까지 공부에 희망을 느끼지 못해 자격증 취득도 하지 못하여 그냥 제과 제빵사를 해 볼까 했다는 말에 토목 분야에 대하여 이

야기를 했다. 자격증이 없어 취업에 자신이 없어하는 대원에게 측량기능사 취득을 권하였다. 측량기능사를 공부하다 보면 토목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그래도 일자리가 측량 분야는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다.

중소기업 1일 현장연수 담당자로서 우리 반 아이들이 현장에 많은 체험을 하길 원하였다. 1학기 때 측량기능사를 취득한 대원이를 토목현장에 1일 현장연수로 보냈더니 현장이 아주 재밌고 자기는 현장 체질이라며 꼭 현장에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지역과 아주 근접해 있는 익산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측량도 하고 공무일도 하는 실습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대원이가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회사도 익산에서 기숙을 하는 것이라 지각 염려가 없어 적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학교에 방문하시게 하여 현장에 대해 안내를 했더니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던 대원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너무 뿌듯하다고 하신다. 나도 이렇게 변화된 대원이의 모습이 아주 멋지고 대견하였다. 대원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떨쳐 버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지난 주 대원에게 추수 지도를 다녀왔다. 제법 현장 일에 익숙해져 이제는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고 현장 측량 책임자가 됐다며 자랑을 했다. 얼굴도 까맣게 그을리고 어깨도 넓어져 이제는 남자가 다 된 모습에 기분이 이상해졌다.

2017년 6월, 인성이가 2달 동안 한국사 공부를 한 결과 한국사 1급에 합격을 했다고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다.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한국사 1급을 당당히 합격한 인성에게 아이들은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 줬고, 나는 이런 가능

성을 가진 인성이에게 빨리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원했다.

2017년 8월, 철도공사 공채시험에 3명이 필기 합격을 하였다. 갈수록 면접 방법이 다양해진다. 처음에는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만 봤었는데, 요즘은 토론 면접, PT 면접 등 여러 가지 면접 기법이 도입되어 나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국철도공사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철도공사 익산 본부에 방문을 했다. 철도공사 차장님의 도움을 받아 직무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직접 근무하는 현장에 방문하여 하는 일과 철도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 학교로 돌아와 인성 면접 질문지와 PT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부터 1주일 동안 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계속 면접 준비를 하였다. PT 면접의 주제도 다양해져 여러 개의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준비해 오고 내 수업에 잘 따라 주는 아이들 덕분에 그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다.

2017년 9월, 한국철도공사 최종 발표를 하는 날이다.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함께했고 어느 정도 예상 질문도 적중하여 면접을 잘 봤으리라 기대를 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밥상을 차리는 것까지 내 역할이지만 맛있게 잘 먹었는지 영양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반포기 상태로 마음만 졸이고 있다. 3명 중 인성이 한 명만 합격을 하였다. 손을 떨떨 떨면서 합격 소식을 전하는 인성을 다른 아이들 보지 않게 조용히 안아 주었다. 학기 초에 공무원반을 나오면서 가졌던 그 불안한 심정과 그동안 NCS를 공부하며 노력한 인성이의 과정을 알지만, 떨어진 두 아이들이 눈에 밝혀 큰소리로 축하도 해 주지 못했다.

2017년 11월. 철도공사 인턴을 마치고 최종 정규직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인성이가 양복을 입고 학교에 찾아왔다. 내 자식이 금의환향한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아 주위 선생님들께 내가 먼저 자랑을 하고 다녔다.

### 나오면서

기간제교사이면서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취업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함을 더 일깨우게 했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두 달여 시간이 남았다. 교실에서 자신의 꿈을 저버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내년 2월까지 취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을 해 본다.

국민의 희망 일자리 파트너 KB와 함께하는 취업 성공 STORY!

#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5.24<sup>목</sup> - 25<sup>금</sup> 2일간

coex Hall D



**주최**

KB 국민은행

**주관**

한국무역협회 kpfita 한국생각금융연구원 동민·성장위원회  
국방전략연구소 WSC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산업인식공단  
한국교육정보원 한국과학기술인재연구원 서울고용노동청 sba  
영남대학교지산재단 서울상조경제혁신센터 한국중소벤처기업연구원

**후원**

인재개발원 교육부 대한민국 국민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KOSDAQ 코스닥협회 KB 금융공약계단

“개미는 작지만 함께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제8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수상작

## 제9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목적

-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바로 알리기 위한 동영상, 포스터, 수필 등을 공모,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주제

- 청년 고용의 주역 '중소기업' 바로 알기

### 부문 및 시상내용

- 응모대상 :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지도교사)
- 응모부문 : 일반/지도자
- 일반 부문 : ① 동영상 ② 포스터 ③ 수필
- 지도자부문 : 지도자보고서

대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전체 1편	150만원
최우수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부문별 각 1편 (3편)	각 50만원
우수지도자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1편	50만원
우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부문별 각 1편 (3편)	각 30만원
장려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부문별 각 1편 (3편)	온누리상품권 각 20만원
특별상 (기업은행장, 네이버대표이사상)	부문별 각 2편 (6편)	온누리상품권 각 20만원
입선 (입선확인증)	부문별 각 10편 (30편)	온누리상품권 각 3만원

### 유의사항

1. 수상작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준용
2. 표절시 취소
3. 동영상 및 포스터 부문 수상작은 선정될 경우 고화질 원본 파일 (ai, psd 등) 제출
4.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수상작 없을시 미선정
5. 지도자부문은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한 선생님들에 한해 지원 가능
6. 개인/팀별로 한 가지 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 참가시 팀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
7. 팀 구성은 4인 이내

### 심사기준

- 동영상, 포스터 부문 : 주제적합성, 독창성, 심미성, 활용도
- 수필 부문 : 주제적합성, 독창성, 표현력, 문장완성도
- 지도자 부문 : 출판작 우수성, 지도학생인원, 보고서 내용

### 접수방법

1.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블로그(smallgiantk.blog.me)를 통해
  2.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3. 작품과 함께 IDEA 공모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파일명 : 제9회공모전\_부문\_이름
  - 지원서 파일명 : 제9회공모전 지원서\_부문\_이름
- 접수기한 : 2018. 4. 21(토) 24:00까지
  - 제출처(이메일) : insik9988@kbiz.or.kr

### 접수양식

- 동영상 : 파일형식 제한없이 30MB, 90초 이내
- 포스터 : A1(594mm\*841mm) 사이즈 제작, 해상도 300dpi, 용량 10MB이내 JPG파일로 제출
- 수필 : 12pt A4 3매 분량(원고지 15매 이내), 상하좌우 여백 20mm 한글 파일로 양식 제한없이 제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HRD센터 02-2124-3390

주최 KBIZ 중소기업중앙회

후원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  NAVER



# 함께할수록 더 커지는 미래 KRX는 나눔입니다

오고 가는 인사처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거래가 있는 곳,  
한국거래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KRX와 함께하는 특별한 금융특강〉

- 모집기간: 매년 3월 중 (참가비 전액 지원)
- 모집대상: 전국 특성화고 대상
- 프로그램: 1) 강사파견 금융특강  
2) KRX방문 금융교육(취업특강)  
3) KRX방문 캠퍼스 투어(진학특강)
- 참가혜택: KRX국민행복재단교육 이수증, 기념품 제공  
우수 참가학교 대상 KRX DREAM 장학금 지급
- 문의처: KRX국민행복재단 금융교육팀 ([www.krxfoundation.or.kr](http://www.krxfoundation.or.kr) / 02-3774-8852)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 제6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수기집

발 행 2018년 4월  
발 행 처 교육부  
주 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 화 : 02-6222-6060, 044-203-6118~9 (공휴일, 야간)  
팩 스 : 044-203-6133, 6144 (공휴일, 야간)  
교정교열 정현성  
인 쇄 처 (주)승림디앤씨  
전 화 : 02-2271-2581~2  
팩 스 : 02-2268-2927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